



# 문화매일



제1422호

2023 / 7 / 11 / Tue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 인도-태국 방문한 김동연 지사, '기업들이 돈 벌기 좋은 신남방시장' 길 텠다.

### 김동연 지사, "경기도 밖으로(Outbound)'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 도지사'로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뛰어" 평가

인도-아세안 '신남방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인도와 태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 개장 상황 점검, 벵갈루루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설립, 1천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지페어(G-FAIR) 아세안+ 지원 등 6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8일 귀국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와 상공부 장관, 태국 경제부총리, 관광체육부 장관, 방콕시장, 유엔(UN) 산하기구장, 현지 기업인 등 정-재계 인사를 만나며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경제 공동체 초석을 다졌다.

#### ● 수출방하기, 발로 뛰며 기업들 판로 개척

우선 국내 중소-중소기업들이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 각종 국제 무역전시회에 참가해 고액의 투자 유치를 이끌 역할을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India International ConventionExpo Centre) 10월 개장 준비를 살폈다. 인도 뉴델리에 조성되며, 총면적 30만㎡로 아시아 5위(중국 제외하면 1위) 규모의 전시장이다. 킨텍스가 20년간 운영권을 수주한 인도 정부의 핵심 마이스(MICE) 국제회의-전시회-박람회 등을 열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 프로젝트인 만큼 각종 국제 무역전시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은 국내 기업의 세계적 성장이 기대된다. 내년 7월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규모 전시 개최 계획도 밝혔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현장에서 "(개장을 앞둔) 9월에 G20 서밋(Summit-정상회의)이 열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에 방문해 주셔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도의 미래 성장산업 집적지인 '벵갈루루'에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을 위한 현지 사무소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도 10월 설립한다.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원하던 카르나타카주 유지 희망서를 제출할 정도로 향후 주정부의 협력이 기대되며, 인도 남부에 있는 카르나타카주정부 관계자가 멀리 뉴델리까지 김동연 지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기도 했다.

역대 지페어(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중 참여기업이 최대 규모였던 '2023 지페어 아세안+도 6일부터 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지사 최초로 현지 행사를 참석해 태국 부총리에게 '일일 영업을 하며 지원사에 나서기도 했다.

그 결과 온라인(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실적은 기업 120곳과 바이어 160곳이 연결돼 상담 365건(9천910만 달러) 약 1천291억 원이 연결됐다. 이 중 계약추진은 221건(4천290만 달러) 약 559억 원이다. 오프라인(태국) 실적은 기업 107곳과 바이어 3천57곳(참관 기준)이 연결돼 상담 3천482건(1억2천200만 달러) 약 1천589억 원이 진행됐으며 이 중 계약추진은 1천398건(4천477만 달러) 약 582억 원, 계약 체결은 9건(1천91만 6천 달러) 약 142억 2천만 원이다.

총 실적은 기업 227곳과 바이어 3천217곳이 연결돼 상담 3천847건(2억 2천100만 달러) 약 2천879억 원이 진행됐으며 이 중 계약추진은 1천619건(8천800만 달러) 약 1천146억 원, 계약 체결은 9건(1천91만 6천 달러) 약 142억 2천만 원이다.

주요 성과를 보면 관련 컵 떡볶이 및 식육을 전문 생산하는 U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태국에서 개최한 지페어에 참가했는데,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방콕의 마케팅대행사업(GMS)을 2년째 맡고 있다. 이를 통해 식육료를 전문으로 수입하는 태국의 A사를 발굴

해 2만 1천 달러의 샘플을 시작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거래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3년간 2백만 달러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용량 텀블러를 전문 제조하는 G사는 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처음으로 올해 지페어에 참가했고, 전시회 기간 중 태국에서 생활용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대기업의 계열사인 F사의 수출총괄 매니저와 상담을 진행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캠핑 등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제품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바이어는 동사의 전체라인 제품에 대해 태국 내 대형 백화점과 같이 협업을 내년 5월 임점을 추진하고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향후 연간 20만 달러 이상의 수출성과 창출이 예상된다.

#### ● 신남방국가 경제 공동체 초석.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기대

이번 해외 출장에서 김동연 지사는 한-인 수교 50주년, 한-태 수교 65주년을 맞아 각국 장관 등 정-재계 인사를 두루 만났으며, 유엔(UN) 산하기구장들도 접견해 '기후도지사'로서 기후 위기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번 방문에서 만난 고위급 인사들은 아쉬워나우(Ashwini Vaishnav)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 푸린 락사나위시(Jurin Laksanawisit) 태국 경제부총리 겸 상무부총장, 피파트 라차키프라칸(Phiphap Ratchakitprakarn) 태국 관광체육부총장, 찻차 시티판(Chadchart Sittipunt) 태국 방콕시장 등으로 경제, 관광, 환경 등 폭넓은 의제로 대화했다.

이 중에서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 태국 방콕시장과의 만남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합의해 추후 반도체를 비롯한 경제와 환경 등에서 교류 확대가 기대된다.

이외 아마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Armda Salsiah Alisjahbana) UN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데첸 텡링(Dechen Tsering) UNEP(유엔 환경계획) 아태사무소장, 인도-태국 현지 한국기업, 인도 경제단체-기업, 태국 관광업체 등을 만나며 숨 돌릴 틈 없는 일정을 소화했다. 인도 현지 한국 기업인인 요청한 민원(게임업체 크래프톤의 서비스 조건 부재 문제 등)을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에게 전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는 등 '해결사' 역할도 수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두 번째 해외 출장, 경기도는 더 커지고 있다. 지난 미국-일본 출장에서 '경기도 안으로(Inbound)' 투자를 유치했다면, 이번 출장은 '경기도 밖으로(Outbound)'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라며 "인도에서는 국내 전시산업 최초로 해외로 진출한 'IICC' 현장을 둘러봤고, 태국에서는 '지-페어(G-fair)' 행사로 1천9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이 성사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뛰기도 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총장, 상공부총장, 태국 경제부총리, 방콕 시장, 관광체육부 장관, UN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UNEP(유엔 환경 계획) 아태사무소장, 현지 경제인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등을 만났다"라며 "앞으로도 '글로벌도지사'로서 세계를 만나겠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경기도를 더 크게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최만식/기자



##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주역 된다



### 이철우 도지사, "초일류국가 진입 위해 지방화 반드시 성공시켜야..." 강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세종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날 현판식은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일에 맞춰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첫 출범을 알리는 자리다.

현판식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관선 국정기획수석 등 부처장관 및 국회의원, 지방 4대 협의체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법은 당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연계 측면에서 한계를 보임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관련법이 마련됐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방정부와 기업체, 대학 등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파격적인 규제혜택과 세제혜택을 담은 관련법들이 조속히 제정, 개정돼야 한다. 특히, 수도권 기업의 이전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지방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의 투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됨에 따라 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

워로서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국정과제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지역공약은 관리 부재한 상태로 국정과제에 미반영된 지역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 수립 등이 없었다.

지역공약은 위원회의 출범과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2024년부터 부분적으로나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교육부의 지방대학 권한 이전으로 전국 최고 오지로 불리는 봉화, 영양, 청송과 도서지역인 울릉에도 대학과 기업이 들어가는 U시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이 권한을 갖고 주도하는 지방시대는 중앙정부가 생각지도 못한 창의력을 지방정부가 발휘하는 만큼 위원회는 시도협과 함께 자치조직권, 특

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 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업화·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이 국민개개인소득 5만불의 초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화를 성공시켜야만 한다. 오늘 출범한 위원회가 지방화의 핵심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에 지방의 강력한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서울시, 압구정지구(2~5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정비사업 본격화

### 공공임대주택, 한강변 여가문화시설 등 공공기여로 재건축사업 공공성 강화



서울시가 한강변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시는 한강변 생활권에 특화된 2~5구역의 통합적 기획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글로벌 매력 도시로 거듭날 서울의 대표 주거단지인 압구정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준공된 지 40여 년이 넘는 압구정 아파트는 서울 한강 중심부에 위치했음에도 판상형 아파트로 획일적인 경관을 형성해 왔다.

1950년대까지도 한강은 배를 띄우거나 수영이 가능했던 곳이었지만, 1960년대 중반 한강 개발이 시작된 이후 콘크리트로 덮이고, 대형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변 풍광은 삭막해졌다. 시는 서울시는 한강의 매력과 가치를 담은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압구정 2~5구역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획안을 통해 압구정 아파트가 '미래 한강의 매력적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단지'(773,000㎡, 50층 내외, 11,80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특히, 압구정 2~5구역이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함에 따라, 개별 단지 계획 차원을 넘어 '하나의 도시'로서 경관, 보행, 녹지, 교통체계 등이 일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압구정 2~5구역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현재 압구정동에서 미성, 현대, 한양 등의 아파트 1만여 가구가 6개 구역으로 나뉘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5구역이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했다.

압구정 2~5구역 종합계획안의 3가지 전략은 ①창·혁신 디자인으로 한강변 파노라마 경관 형성 ②여가·문화 생태계 조성으로 성수-압구정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 ③보행 가로 활성화 및 미래 주거공간 계획 이다.

먼저, 서울시는 부채골로 펼쳐진 압구정의 특징을 살려 한강변 파노라마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창·혁신 디자인 도입'과 함께 경직된 높이 규제를 없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단조롭고 사유화된 한강변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 리듬감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신속통합기획 서울레이션에 따르면, 한강변 입지 특성 및 경관성을 고려해 최고 층수를 35층 → 50층 내외로 계획했으며, 한강변 첫 주동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했다. 시는 창·혁신 디자인 도입 시 높이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압구정은 '곳(串) 곳 : 부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뻗은 육지'의 형상을 띤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과거 한명회가 정자를 짓고, 겸재 정선이 그림을 그릴 정도로 경관 및 접근성이 뛰어나 서울시민의 여가·문화 장소로서 애용되고 있다.

아울러, 강남·북을 잇는 동호대로, 성수대교를 따라 광역통행축을 형성하고,

서울숲, 응봉산, 달맞이봉공원 등 강북의 주요 자원과 압구정의 보행통행축을 서로 연계해 입체적인 경관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한강변 30m 구간은 수변 특화 구간으로 설정해 주민공유시설, 열린 공간, 조망 명소 등 특화 디자인을 통해 도시와 자연이 경계 없이 융합하는 한강변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강북(성수)과 강남(압구정)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수변이 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구역별로 특화된 수변거점을 조성해 강과의 유대감을 회복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여가·문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압구정 3구역 조합에서 공공기여로 제안한 압구정~성수 보행교(자연계)를 시에서 수용함에 따라, 강남의 상업·문화 기능(가로수길, 로데오거리 등)과 강북의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상표부지, 성수동), 서울숲의 자연이 도보 30분의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보행교는 자전거 및 미래교통수단(PM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될 계획이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응봉역까지 이어지는 보행교를 통해 강북~강남까지 자전거 출퇴근이 가능해지면 시 주민의 소통과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각 구역별로는 2구역의 수변 커뮤니티 시설(여가거점), 3구역의 뚝배기(문화거점), 4, 5구역에 조망테크공원(조망거점)을 설치해 서울시민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는 한강변으로 거듭난다.

현재 압구정 한강변은 한강 둔치의 폭이 매우 좁아, 시민의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압구정 수변거점은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한강변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설계를 통해 한강변을 찾는 시민의 여가·문화 활동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현재 아파트로 단절된 '한강'은 길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유시설을 배치하고, 미래 주거문화를 담은 생활공간 설계를 통해 주민의 삶을 한층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다.

한강변 수변거점과 연결되는 각 구역별 남·북간 보행축에는 연도형 상업시설, 주민공통시설, 생태녹지 등이 함께 조성된다. 동·서방향으로는 압구정로를 따라 근린생활시설과 공원이 교차 배치

돼 걷고 머무르는 다채로운 보행 활동이 있는 가로로 조성된다.

남·북간 보행축은 가로수길, 병원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와 연결돼 압구정을 찾는 시민이 한강변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동·서간 보행축은 압구정로의 상업 가로와 맞대응해 활력있는 거리로 조성된다.

특히, 3구역의 경우 압구정역에 가까운 일부분을 3층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복합 기능을 유도함으로써, 역세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또한, 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세대 거주공간의 배치와 품질을 동일하게 계획하여 적극적인 소셜믹스가 이뤄질 수 있게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거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래 주거문화를 대응해 주거공간이 잠만 자는 곳이 아닌 휴식과 여가가 함께 하는 생활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공공기여 원칙, 구역별 공공임대주택 확보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주택이 확보될 계획이다. (약 1,200여세대 내외)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생활양식)에 맞춰 확고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설계윤선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사로봇·드론택배 시스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공유 사무실 및 다목적 문화공간, 첨단기술을 활용한 자율주차 시스템 등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열람공고하고,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의 등 법적절차를 거쳐 신속히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의 취지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신속통합기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단지는 일반사옥이 주거문화로 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장은 "과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상징이었던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한강을 향유할 수 있게끔 도시의 공공성까지 담아냈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례가 한강의 잠재력을 살린 세계적인 수변도시 모델로, 선도적 주거문화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경기도의회 고은정의원, K-바이오밸리와 일산테크노밸리 성공위한 토론회 개최

### 고양-파주-김포시는 경기 북부에 특화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큰 축으로 작용할 것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 고양10)이 좌장을 맡은 'K-바이오밸리와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월 7일(금) 15시 일산 서구청 가와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태성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장은 국내의 바이오산업 및 바이오클러스터의 동향 브리핑 후 고양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및 육성방안에 대하여 차별화 전략 수립, 의료 인프라 활용, 김포-고양-파주 연계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국가첨단전략사업특화단지 공모 준비를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표대영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장은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 활성화 방안으로 바이오 특화정책 발굴 및 지원시스템 구축, 산·학·연·병 협업체 결집, 바이오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기업유치를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 열 국립암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겸 국제안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바이오 헬스산업 발전에 있어 연

구 기반 생태계 조성과 고급 인력 확보, 개발된 기술 효과의 임상적 검증, 정밀 의료를 위한 바이오 헬스 빅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정명수 한미양행 대표는 바이오산업은 미래국가경쟁력을 이끌어갈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 강조, 경기도바이오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일산테크노밸리 인프라 조성 및 관련 기관 유치를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용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북부(파주-고양-김포)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경기북부바이오클러스터 추진협의체 구성 및 바이오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연구기반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날 좌장을 맡은 고은정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바이오산업이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이다"고 전하며, "민선8기 핵심 전략산업은 바이오산업, 반도체, 첨단모빌리티이다. 경기도가 K-바이오밸리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린다면, 고양-파주-김포시는 경기 북부에 특화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큰 축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부위원장은 "고양시에는 6개 병원이 위치하여 임상에 특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바이오산업 재배치가 있어 전국 25개 시도가 뛰어 들고 있는 지금 고양시는 파주시, 김포시와 각각의 특장점을 살려 경기북부에 특화된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과 고양시민 여러분

의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린다"라며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염중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김달수 정무수석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제12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해 7월 8일 출범한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1대 보다 2명이 늘어 모두 11명의 원들로 구성된 제12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윤승오 위원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현장 의정 활동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며 도민과 달려온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지난 1년을 보면.

**▲도민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

위원회 구성시부터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표방한 교육위는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 예로 (구)울릉서중학교 매각건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폐교에 대한 미래 행정 수요 및 보존 가치를 확인하고 매각 목표/대안 제시 주민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한 적이 있는데, 이는 현장에서 답이 있음을 증명할 뿐 아니라 폐교 활용에 대한 미래지향적 거시적인 안목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다.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의회 구현**

제12대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구성 이후 현재까지 조례안 36건을 비롯, 예결산안 6건, 동의안/기타 안건 13건 등 총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조례안 36건 중 의원 발의안은 24건으로, 이는 지난 11대 교육위의 1년차 기간 중 의원발의한 조례안 14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과정 참여가 돋보였는데, 특히 2023년 교육청 본예산의 경우 최종 334억원 삭감하여 수정가결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는 등 교육

력 회복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효율적인 도정 및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견제와 감시 역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면밀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열정적이고 강도 높은 질의를 통해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총 68건(시정.처리 13건, 건의.추구 52건, 제도개선 3건)에 이르는 다양한 지적 및 개선사항을 도출해냈다.

이 밖에 10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 및 먹거리 확보를 위한 도정에 관한 정책도 활발히 추진해왔으며, 더불어 대규모 자연재난 재발방지 대책,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과밀학교 대책 마련 등의 도정/교육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질의인 도정질문을 통해 추진 방향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끊임없이 연구하는 의회**

또, 학습결손/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연구회, 경상북도경제교육발전연구회, 경북도 학교안전연구회 등 각종 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안목을 넓히고 정책제안 기능을 강화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을 정립해 나가, 그 결과, '2022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2022년 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 '제13회 우수의정대상', '2023 지방의정대상' 등 분야에서 교육위원회 8명의 의원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윤승오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제12대 교육위원회를 믿고 지지해 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질타를 해주신 도민,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박강산 서울시의원, 새로운 정치세대는 지방의회에서 등장해야



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7월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개최된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이날 연례학술회의는 이현출 한국지방의회학회 회장의 개회사 및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최홍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의 축사로 포문을 열었다.

박강산 의원은 지방의회의 위상강화 방안 모색 세션에서 "지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이탄희 의원이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가 1분 축사하러

하루 열 군데씩 경조사 정치를 한다고 지적한 것이 뼈아팠다"라며 "하루빨리 생활정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국민을 닮은 국회가 바람직한 것처럼 시민을 닮은 시의회와 구민을 닮은 구의회가 가장 좋은 것이다"라며 "기본적으로 선출직 의원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대표성을 가진 제너럴리스트에 가까워야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및 담당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증대가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더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 인력도 부족하지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 여건도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지방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가로막는 정치자금법 6조가 하루빨리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11월 24일에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막는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결정도 2024년 5월 31일 이후에는 효력을 잃게 된다.

끝으로 박 의원은 "어느덧 386세대가 686세대가 되어가는데 새로운 정치세대의 등장은 요원한 것 같다"라며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정치세대가 훈련되고 배출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날 토론회 참석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연례학술회의는 한국지방의회학회, 한국주민자치학회,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회장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전북연구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건국대학교, 서울신문, 강원일보, 전북일보, 파이낸셜뉴스가 공동으로 후원했다.

최만식/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 받아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제2차 회의를 열어 도민안전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열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한빛원전 안전대책 등 원전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장은영 위원장은 "건설저장시설 건설 추진 과정에서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면서 "원전 운영에 대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반드시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빛원전이 영광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빛권 광역방재센터가 전북 부안으로 확정됐다"면서 "한빛원전 유치할 기회를 전남도 스스로 포기해 한빛원전 현안에 대한 대응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 안전 등 사회재난 업무의 중요

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담당 부서장의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담당과장을 개방형 전문직위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원전 관련 정책은 국가 사무이지만, 200만 전남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건설저장시설 건설에 대해 도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빛원전 특별위원회는 장은영(비례), 모정환(함평), 김문수(신안), 조옥현(목포3), 박문욱(목포3), 나광국(무안2), 정길수(무안1), 최정훈(목포4), 정철(장성1), 박원중(영광1) 의원 등 10인으로 구성됐으며, 원전 안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범정부 지원-소통 체계 구축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박종배/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2023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기초의회부문 대상 수상



고양특례시의회가 '2023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5회째인 이번 박람회는 경인일보 등 10여 개 언론사가 공동주최하여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간에 상호협력과 상생을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공감의 장을 마련한다'라는 취지로 개최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7월부터 9월까지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 3일간 참여하여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홍보전시관을

통해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의정 책자와 리플렛 배부하는 등 고양시의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조현숙 부의장, 문재호 의회운영위원장,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이 박람회장을 방문하여 직원을 격려하고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참관했다.

특히 8일 오후 2시에 열렸던 '2023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시상식'에서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온 공로를 인정받아 기초의회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 참석한 조현숙 부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 발전에 고양특례시의회가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선도하며

지방행정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노력하여 발전하는 고양특례시의회가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영기/기자

# 화성시의회, 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 창립 26주년 기념식 참석

화성시의회는 10일 우리꽃식물원에서 개최된 (사)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 창립 2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을 비롯한 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 이은만 회장 및 전국인민,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 등이 함께했다.

김경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화성시에서는 쌀 밥 보급, 수확미 즉석밥, 쌀 압축보관 기술 개발 등 쌀전업농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화성시에서 쌀 농업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테니,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해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설립 26주년을 맞은 한

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는 전국 쌀전업농가의 자주적 협동체로서 우리나라 쌀 농업의 보호 및 발전을 위해 전국 7만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양시현/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영인, 발행인: 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문화부:내선 (116)  
 광고: 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취방부: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1년 의정 성과'**

**도약하는 대구를 위한 일년의 알찬 행보**

지역 최대 현안인 군위군 편입,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 노력  
 군위군 편입,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조직·기능 확대에 대한 체제 완성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펼쳐며 민생안정에 최우선  
 시정질문·5분발언 92건, 현장점검 48개소, 행정사무감사 482건 시정·건의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의 슬로건 아래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온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후보자 검증 기능 강화를 위해 '후보등록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민주적으로 의정단을 구성하고 지난 1년 동안 치열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에 본지 취재진은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가 출범 1주년간 거둬 들인 의정활동 성과를 살펴보고 이제 2년차 의정 추진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 먼저, 지역 주요 현안 해결에 앞장 서다!**

제9대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군위군 대구 편입,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맑은 물 확보 등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집행부와 협력하며 의회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맑은 물 공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 정치권은 물론 타 시도와도 적극 협력하며 거침없는 활동을 펼쳤다.

지난 8대에서도 맑은 물 공급과 신공항 관련 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번 제9대에서는 시민들의 생명권과 직결되고 있고 대구 미래 50년을 책임질 두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했다.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는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지시 성명서' 발표('22.8.22.), '안동·임하댐 맑은 물 공급과 상생발전 MOU' 체결('22.11.2.) 등을 추진하며 현안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했고,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시·관·정 간담회('22.12.23.) 등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방향을 제시하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또한 이만규 의장과 전경원 운영위원장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주도면밀하게 총력을 다했다.

**▲다음으로 군위군 대구 편입에 따른 현황 파악 및 사전 교류를 철저히 했다.**  
 지난 1일,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돼, 대구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게 됐고, 군위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해 대구경북신공항, 에어시티와 첨단산업단지 조성함으로써 대구는 새롭게 비상할 기회를 잡았다.

아울러, 제9대 대구시의회는 경상북도의회 소속이었던 박창석 의원이 대구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함에 따라 의원

정수가 1명 증원돼 33명의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새로 편입 되는 의원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연구실 배정, 소속 상임위원회 배치 준비 등 시의원 차원의 의정 지원을 빈틈없이 준비했다.

또한, 군위 편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편입에 따른 행정공백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사전에 현황 파악을 완료했다.

먼저, 교육위원회는 군위교육지원청, 학교, 도서관 등을 방문('23.3.20.)해 교육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는 군위 한밤마을, 화본마을을 찾아('23.5.2.) 대구관광정책 확대 방안, 의회를 방문('23.5.16.)해 행정재산 및 각종 자치 입법을 교차 점검했으며, 경제환경위원회는 군위관광과 농업기술센터를 방문('23.6.23.)해 농정 현안을 청취하고 파악했다.

또한 군위군의 농정 중심 행정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태순 의원)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관광의 쇠퇴(이재하 의원), 군위군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마련(김지만 의원) 등에 대해 집행부에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의 뜻을 담은 내실있는 의회 운영과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로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년간 총 9회기 동안 총 339건(조례·규칙안 193건, 예산·결산 21건, 동의·승인 74건, 건의·결의안 2건, 의견청취 4건과 원구성 선임안 등 기타 45건을 심의·의결)의 의안을 처리하며 내실 있게 회기를 운영했다.

의원들은 조례 발의 85건, 시정질문 20건, 5분 자유발언 72건을 실시하며 시정 견제와 제도 개선에 열정을 보였다.

시민의 안전 및 지역 경제 발전과 직결된 시정현안에 대해서는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관련 제도 개선에 집중함으로써 시민 권익 신장에 기여했다.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철도 순환선 차량 시스템과 노선 변경, 두류정수장 터매장 등 논란이 제기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시정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사전 협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촉구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동의안 심사에 있어서는 찬반 양측 주민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치밀하게 심사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482건의 시정·건의 사항을 지적하는 한편, 민선8기 중점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부진한 시정업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활발한 의정 교류를 통해 역량의 폭을 넓혔다**

이만규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조직 및 인력 규정의 개정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를 3년 만에 대구에서 개최('23.6.21.)해 대구의 현안 사업 등을 전국 시도의회에 알리며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현안 공유 지자체와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교류를 추진했다. 안동과 '안동·임하댐 맑은 물 공급과 상생발전 MOU'를 체결하고, 광주와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 및 2038 하계야시안게임 공동유치를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 타시도 의회 내방 등 지방의회 간 활발한 정보 교류 및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지방의회 간 우호를 쌓고 상생발전을 도모했다.

**▲의회 전문성과 선진화 실현을 위해 조직 정비 완료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2.1.13.)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전국 최초 정책지원팀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는 대구시의회 의원 정수(32명)의 2분의 1인 16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 완료했다. 또한 특위전문위원, 법적지원팀을 신설해 입법과 정책개발 등 의정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본격적인 독립적인 조직 운영을 시작했다.

13명의 시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상임위원회별 '의정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변명 및 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지역의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의원역량 강화 및 지역 현안 해결 정책을 위한 '새시대 희망포럼' 등 5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아동돌봄 현장으로부터 듣는다' 등 3회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의원 겸직현황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민선8기 새로 임명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차례 실시해 깐깐한 역량 검증으로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또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 구속기소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했다.

**▲시민중심, 현장 중심의 '민생의회' 구현하다.**

상임위원회별로 군위군, 신청사 건립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대구국가산업

단지 등 주요 현안사업 현장 48개소를 방문해 운영실태 및 사업추진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특히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현장 및 서구 중리동 공장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조속한 지원대책을 논의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되었던 '민생현장탐방'도 앞산 관광 명소화 방안 모색을 시작으로 제9대에 들어서 재개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시민소통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해 14건의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정책 반영을 건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사전에 36건의 시민제보를 접수하고 감사 기간 동안 시민을 대신해 따져 물었다. 또한 월배3중학교 신설 촉구 등 249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해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

이만규 의장은 "제9대 대구시의회는 개원 이후 지난 1년 동안 군위군 대구 편입,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책제안에 힘써 왔으며, 이제 그 성과가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해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 무엇보다 민생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민생경제 복원과 대구미래산업 혁신을 위해 시의회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안 심사 등을 빈틈없이 준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대처할 것이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 대구의 현안사업을 꾸준히 챙겨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 인천시, 전문가 시민들 한자리 모여 시민 행복 교통대책 논의



### 전문가·운수업계·시민 등 70여명 참석해 '인천 시민행복 교통대책 대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시는 시민 행복 교통대책 논의 위해 7월 10일 인천교통공사 대회의실에서 교통 관련 전문가들과 운수업계·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시민행복 교통대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 시민들과 교통전문가가 한데 모여 인천의 교통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이 행복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정복 시장과 버스·택시 운수업계 관계자 및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여성운전자회·한국교통장애인연합회 회원들과 교통 분야별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인천 모빌리티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 연구부원장은 "인천시는 인구가 감소하는 타 대도시권과 다르게 인구가 유지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많아 통근 통행의 시외유출입 통행 비중이 높고, 승용차의 이용률이 높다"면서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디지털 물류, 친환경차 확대 등 미래 모빌리티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시민 행복 체감 교통대책' 주제 발표에서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광역· 시내버스 혼잡도 증가, 원도심 주차 부족 및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 용량 부족 등의 교통 문제에 적극 대응

해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버스, 빠르고 쾌적한 지하철 구축, 시민에게 사랑받는 택시, 스트레스 없는 주차환경 조성, 사통팔달 철도·도로망 구축, 첨단교통체계 구축 등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은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이자, 전(前) 국가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교통 기반 시설(인프라)과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김도년 교수는 "인천시가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토론회가 글로벌 도시 인천 도약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토론회에서 "교통정책은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등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초석이 되는 분야"라며 "인천시는 사통팔달 도로망과 철도망 구축 등 교통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 안양시, 내년 주민참여예산 131건 제안받아

### 사업효과성 및 지역주민·부서 등 검토 거쳐 내년 예산안 제출 예정

안양시는 오는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131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검토를 통해 내년 시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차 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정의 책임성·투명성·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로, 사업의 제안부터 심의, 예산편성, 결과 모니터링까지 모두 주민의 참여로 이뤄진다.

시는 이번 총회에서 내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된 사업을 분과별로 배부하고 심의 계획을 수립했다.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난 2월 위촉된 위원들은 일반행정, 기획경제, 복지문화, 보건환경, 도시상수도, 건설교통 등 6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사업 심의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오는 9월까지 분과별로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과 제안자의 의견 수렴 및 사업의 효과성 등을 1차 검토하고, 사업부서와 논의하는 2차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제2차 총회와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확정된 '2024년 주민참여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는 오지은 시민주권센터 센터장을 강사로 초청해 분과별 심의방법, 제안사업 현장확인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라며 "예산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사회적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시민들의 소망을 담아내는 주민참여예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우용/기자



# 부천시, 2023년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 으뜸상' 선발

부천시는 10일 창의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편의 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우수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2023년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으뜸상'을 선발·시상했다.

부천시는 3건의 우수정책을 으뜸상으로 선정하고, 담당 직원 6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이번 시상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정책을 발굴·포상해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높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한층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4월 말부터 후보 추천 정책 6건을 접수해 설문조사를 포함한 1차 실무평가와 2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지난 6월 3차 공적심사에서 3건의 우수정책(최우수·우수·장려)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최우수 정책은 ▲전국 지자체 최초, 주정차 음성(ARS) 알림서비스 도입(주차지도과), 우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바우처

택시 및 입산부 맘(Mom)편한 택시 도입(대중교통과), 장려는 ▲시 예산 절감 및 안정적 지하철 서비스 제공, 지하철 7호선 신규 전동차 2편성(16량) 제작·구매사업(교통정책과) 등이다.

으뜸상 수상자에게는 선정된 정책 팀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개인별 업무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 부여된다.

조용의 부천시장은 "적극행정 우수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전파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 안산시, 사회적 고립예방을 위한 중장년 발굴·지원사업 나서



안산시는 이달부터 사회적 고립예방을 위한 중장년 발굴·지원사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적 고립 우려가 있는 중장년(50~64세)을 발굴해 욕구파악 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일상회복을 도와주는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선정해 사업 참여를 희망한 5개동(일동, 해양동, 백운동, 선부1동, 선부3동)을 먼저 시범운영한다.

지난 7월 환경교통회 회의실에서 5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관련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역할을 논의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지역사회보장협

의체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사회적 고립 우려가 있는 중장년을 적극 발굴해 ▲이웃 간 사회적 관계형성 ▲식생활 개선 ▲사회활동 참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박소운 복지국장은 "1인 가구 비중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간 돌보는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 인적안전망 네트워크 조직으로, 25개동에 560여 명의 위원이 위기가웃 발굴 및 지원, 동별 맞춤형 복지사업 운영 등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정부/기자

# 고품질 시흥쌀 생산 위해 '벼 병해충 항공방제' 추진

시흥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고품질 시흥쌀 생산을 위해 관내 농협과 협력해 유기농자재를 이용한 병해충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증가하는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1차 방제를 시작한다. 이후 2차(8월 1~2일), 3차(8월 22~23일)에 걸쳐 총 3회 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벼 재배지역 799헥타르(ha) 중

집단 재배지는 유인 헬기를 활용하고, 아파트 밀집 지역과 학교 인접 지역은 드론 및 무인헬기를 이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지역 맞춤형 방제를 추진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에서 인증한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품을 이용한다.

이번 공동방제를 통해 농작업 인력난으로 인한 개별 약제 살포 작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쌀 품질과 수량에 영향을 주는 멸구류와 노린재 등

을 적기에 예방할 수 있어 고품질 시흥쌀 생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화 시흥시 농업기술과장은 "방제 당일 시민들은 방제 지역 주변 통행을 삼가야 한다. 양봉·친환경 재배 농가는 약제 비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우용/기자



Everywhere Green Life, H<sub>2</sub>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 · Feel · 必

#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 전남도, 외국인 근로자 비자 개선... 조선업 인력난 해소 기대

### 전남도 건의 '숙련기능인력 근무기간 요건 완화' 등 반영



전라남도는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비자 전환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해 조선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비자제도는 비전문취업(E-9) 종사자가 5년 동안 근무하면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을 전환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의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본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국내에 재입국해야 했다. 본국 출국과 국내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돼 기업 입장에서 장기간 근로 공백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외국인 근로자는 재입국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애로가 많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 기간이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완화돼 기업에는 노동 공백이 해소되고,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면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지고 배우자와 자녀 초청이 가능해 조선업 인력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남지역 조선업 종사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는 2천400여 명으로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족과 함께 지역

에 정착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전남도는 선박 수주 호황에 따라 조선업 인력 적기 공급을 위해 내국인 인력 양성과 함께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외국인 고용 기업의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GNI 80%에서 70%로 완화 ▲고용업체 기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에서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 ▲외국인(E-7) 고용비용 내국인의 20%에서 30%로 확대 ▲조선업 전용 비전문취업 쿼터 신설 등이 개선됐다. 김중갑 전남도 전라선산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포함해 지금까지 개선된 비자제도가 선박 수주 증가로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내국인력을 비롯해 외국인력 수급을 적극 지원해 조선업 호황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전라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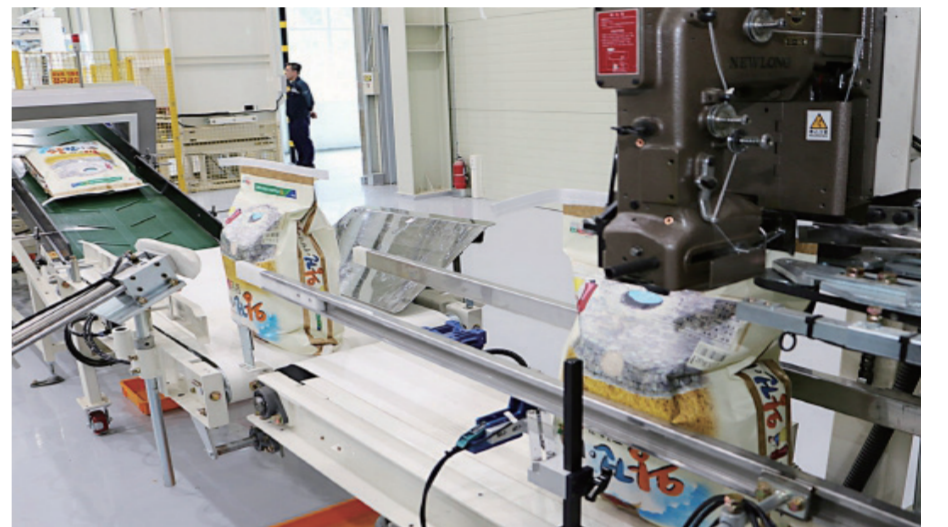
# '나주 왕건이 탐낸 쌀' 전남 10대 고품질 쌀 선정 쾌거 친환경 우렁이 농법, 농가 계약재배로 엄선된 대표 쌀 브랜드

영산강 유역 기름진 나주평야에서 생산되는 '왕건이 탐낸 쌀'이 소비자들 미고 구미하는 쌀 브랜드로 도약했다. 전남도 나주시는 나주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에서 생산·가공하는 '왕건이 탐낸 쌀'이 2023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10대 브랜드 쌀은 우리 쌀 판매 활성화와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도모하고자 2003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농업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6개 기관에서 품질, 안전성, 식미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왕건이 탐낸 쌀은 고품질 쌀을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에 맞춰 지난 2003년 남평농협에서 개발·육성한 청무쌀이다. 친환경 우렁이 농법과 농가 계약재배를 통해 엄선된 고품질 쌀을 생산해내내는 물론 미국, 베트남 등 수출 효과 상품으로 통한다. 이 쌀은 지난해 9월 미국 LA한인타운에서 열린 제49회 미국 한인축제 한국농수산물 및 우수상품 엑스포전에 출품되기도 했다.

앞서 2021년에는 코로나19 방역 의료진을 비롯한 국가·사회 유공자 1만5000여명에게 전달된 대통령 명절 선물세트에 왕건이 탐낸 쌀이 포함되면서 당해연도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나주시는 농식품부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통합RPC(미국종합처리장) 시설을 지난 4월 준공, 고품질 쌀 대량 생산에 힘쓰고 있다. 통합RPC는 시간당 정곡 10톤, 연간 최대 2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전국 최대규모 가공현대화시설과 쌀 8400톤이 수용 가능한 건조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다. 조병태 나주시장은 "소비자들이 미고 구미할 수 있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통합RPC 관계자,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나주쌀이 국내를 넘어 해외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는 명품 브랜드 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박중배/기자

# 남원시, 자연을 담은 특별한 공간 "생물테마체험시설 Eco\_CUBE"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생물테마체험시설 『Eco\_CUBE』를 임시 개관한다. 생물테마체험시설 에코 큐브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새로이 선보이는 교육, 체험기관으로 지리산의 우수한 생태관광자원 활성화와 상생하는 지역 발전 도모 등을 목적으로 건립됐다. 이번 임시 개관은 4개의 전시실 중 어류실, 특수동물실, 곤충실 3개의 전시실을 먼저 선보이며 담수복어, 알다브라육지거북, 왕사슴벌레 등 형형색색의 특이한 모습과 재미있는 생태를 가진 다양한 동물들을 직접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로, 관람 시 사육사가 진행하는 전문 생태해설이 포함되어 있

## 눈을 사로잡는 동물들의 모습과 다양한 생태체험

어 유아나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눈높이별 해설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정식 개관 전까지 임시 개관해 무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임시 개관 기간에는 월요일 휴관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시, 13시, 15시 1일 3회 운영되며, 1회 최대 45명이 참여 가능하다. 7월 8일부터 정식 개관 전까지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남원시 통합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또한 예약 접수 정원 미달 분량은 당일 현장 발권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 개관을 통해 백두대간을 방문해주시는 관광객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운영인력의 숙련도를 높여 질 높은 전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 완도군, 한상-모국 기업인 비즈니스 축제 11월 여수 개최 27~28일 디오션호텔서 장보고,최경주배 골프대회 함께 열려

한상, 모국 기업인 상생 비즈니스 축제가 11월 27-28일 양일간 여수에서 개최된다. 장보고글로벌재단은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되는 한상, 모국 기업인 상생 파트너십 대회와 부대 행사로 열리는 장보고, 최경주배 골프대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여수 디오션호텔과 디오션CC에서 개최하기로 최경주재단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파트너십 대회는 역대 '장보고한상 수상자'를 비롯한 재외 동포 경제인(한상)과 국내 기업인 등 총 2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의 주관으로 수출상담회와 참가 업체의 제품 전시회, 제품 품평회 및 상생 상품 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보고, 최경주배 골프대회는 28일 낮 12시부터 디오션CC에서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샷선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김덕룡 이사장은 "지난 6월에 개최된 제1회 장보고한상 수상자 세계대회 개최와 더불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상생 파트너십 대회는 한류 열풍의 수혜자인 한상과 모국 기업인들이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모색함으로써 한민족 경제 공동체 구축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경주 KJ재단 이사장도 "한상과 모국 기업인들이 함께 라운딩하는 골프대회는 장보고, 최경주배 밖에 없다"며 "이들이 운동과 비즈니스를 통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점배 장보고한상수상자협의회 회장은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소비자들 이어나 할 것 없이 한국 상품을 앞다투어 구매하고 있다"며 "천재일우를 맞이하여 올해 상생 파트너십 대회도 K-FOOD와 K-뷰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생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다짐했다. 양영률/기자

# 함평군, 2023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우수기관 표창

## 보건복지부 표창 및 포상금 600만원 '쾌거'

전남 함평군이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함평군은 "지난 7월 서울 더-K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함평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과 포상금 600만원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아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지역 특성과 지역민의 수요에 맞는 건강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매년 전국 16개 시도 및 254개 기초 자치단체 보건소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 운영성과, 핵심성과지표 달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있다. 김영진/기자

함평군은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평가에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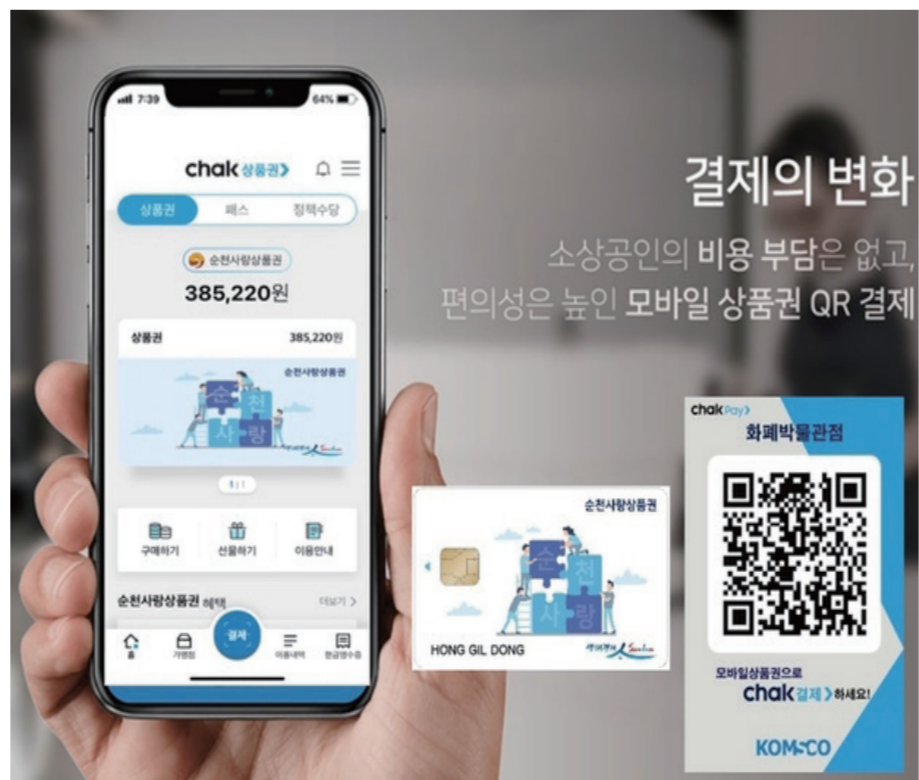
# 순천사랑상품권 상반기 판매금액 556억원 달성...지역경제활성화 효과 톡톡

순천시가 올해 상반기 순천사랑상품권의 판매금액을 전산한 결과 전년도 상반기 대비 0.3% 상승한 556억 원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근 여수, 광양시에 비해 각각 35%, 20% 이상 높은 금액이다. 시는 순천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을 축소(4%→2%), 30억 원 초과 매출액 가맹점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시민들의 어려운 가계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했다. 시는 지난 1월 새해와 설 명절을 맞아 10% 특별할인을 시행했고, 138억 원의 순천사랑상품권이 판매됐다. 2월부터 3월에는 5% 일반할인을 시행하여 2월에는 79억 원, 3월에는 66억 원의 순천사랑상품권이 판매됐다. 또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와 가정의 달을 맞아 4월부터 8%의 특별할인을 시행했다. 특별할인의 변동은 국비 지원 비율 감소(4%→2%)에 따른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에는 104억 원, 5월에는 103억 원의 순천사랑상품권이 판매됐으며, 전월 대비하여 57%가 증가했다. 반면, 지난 6월에는 순천사랑상품권이

64억 원 판매되며 전월 대비 39%가 감소했다. 이는 6월 1일부터 영세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시행에 따라 농협 하나마트, 파머스마켓 등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206개소)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제한됨에 따른 결과이다. 올해 상반기 순천사랑상품권 판매금액이 인근 여수, 광양에 비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여수시 56억 원, 광양시 45억 원 대비 92억 원의 시비 예산을 투입하고 여수시 7억 원, 광양시 10억 원 대비 22억 원의 국비 확보에 따른 결과다. 한편, 순천시는 개편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적용과 물가상승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성공적인 정원박람회 운영을 위해 예산소진 시까지 특별할인 8%를 유지할 전망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달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제외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순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

가 있는 만큼 하반기 상품권 판매추이와 이후 정부동향을 파악하여 내년도 순천사랑

상품권 예산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준/기자



# 진도농협, 완도농협과 상호기부로 고향사랑 동행 1,000만원씩 상호 기부로 지역 발전 응원

진도군이 진도농협과 완도농협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상호교차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기부는 진도농협 직원들이 완도군에, 완도농협 직원들이 진도군에 1,000만원씩 상호 기부하며 지역 발전을 응원했다. 진도농협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을 위해 농협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진도군과 다양한 방안을 찾는 데 힘

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준 두 지역의 농협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계속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강화로 지역의 기관·단체와 협력해 진도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6월에는 서진도농협과 목포농협이 상호기부했고, 앞으로 진도선진농협과 해남화원농협이 상호 릴레이 기부 동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원규/기자



# 전북도-정치권, 전북특별법 개정안간 담...농업·산림분야부처 설득공조



### 10일 안호영 의원, 농축산식품부·산림청 관계자와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부처 수용에 대한 열띤 토론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개정안의 부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10일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분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분야, 산업 및 환경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전북도·전북연구원이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안호영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농생명산업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 및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체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과제인 농생명산업지구의 지정 권한 및 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대상자 확대 특

례, 식품바이오산업, 육종산업 등 생명산업 선도에 필요한 사업 지원, 청년농업인 양성 등 전북의 여건을 반영한 해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동부 산악권을 친환경 글로벌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 해소 방안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차원의 검토를 진행했다.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부처 수용에 대한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표방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어 농생명산업 육성 분야는 큰 축을 담당한다. 새만금 지역 내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꼭 필요한 사항만 개정안에 담았으니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해주길 바란다"며 부처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이남출/기자



## 장흥군, 아이디어 발굴 'TOYO in 장흥 프로젝트' 성료 청년 예술인 활용,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제안하고 대상 수상

장흥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 발굴 캠프 'TOYO in 장흥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번 아이디어 발굴 캠프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토요일, 우드랜드 일원에서 개최됐다.

'TOYO(acTivation fOr saturday traditiOnal market) in 장흥 프로젝트'는 장흥 토요일시장과 인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캠프다.

광주·전남 5개 대학(광주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조선대학교)에서 50여명 학생들이 참여했다.

캠프 첫날인 7월 4일에는 오리엔테이션, 토요일시장 역사 특강, 장흥읍 현장답사 등을 진행했다.

캠프 장소인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에서는 팀 빌딩에 들어갔다.

2일차인 5일에는 팀별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멘토링과 홍보영상 및 프로토타입 제작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아이디어 발표와 시상식이 진행됐다.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안됐는데 대상은 '흥미로운 장흥, 흥이 있는 장흥, 모두가

행복한 장흥을 꿈꾸며 청년 예술인 활용 방안과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제안한 10조가 수상했다.

그 외에도 장흥 소개비(소+도개비) 야시장, 토요일시장 AR 체험 콘텐츠, 토요일시장 서포터즈 위촉, 장흥군 굿즈 제작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안됐다.

캠프에 참여한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3학년 학생은 "장흥 토요일시장에 대해 잘 몰랐는데 캠프에 참여하며 장흥삼합을 알게 됐고 장흥의 많은 자원을 젊은 세대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팀원들과 함께 발굴한 아이디어가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에 참여한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에 젊은 청년들이 모여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제안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할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7월 말에 진행되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흥군은 향후 목포대학교와 협의를 하여 아이디어 작품 전시회를 추진하고 아이디어 구체화 작업을 위해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박재원/기자



## 화순군, 수돗물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

### 깨끗한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화순군은 지난 상반기에 화순읍 정수장을 포함한 5개 정수장의 법정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 모든 항목에서 '적합'을 판정받았다"라고 밝혔다.

군은 수도법 및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일 6항목, 주간 7항목, 월간 60항목, 분기별 11항목 등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돗물 수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 93개소에 대해서도 분기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도 모두 '적합'을 판정받아 철저한 수질관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한 수질검사 결과는 국가상수도정보

시스템과 화순군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가정용 수돗물의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 주는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먹는 물 신뢰 향상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정수장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신청 및 기타 수돗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상하수도사업소로 전화하면 된다.

윤경호/기자

## 고품질 특산어종 방류, 소득향상 기대

## 강진군, 금강천에 뱀장어 치어 4천 마리 방류

강진군은 뱀장어 치어, 4천 마리를 금강천에 6일 방류했다고 10일 밝혔다.

뱀장어는 고품질 특산어종 가운데 하나로, 기후 변화와 댐의 건설로 개체수가 급감해, 방류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날 행사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산증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 군 해양산림과·작천면 직원과 작천 주민 대표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금강천은 작천, 웅천, 병영면과 연결된 오름되지 않은 청정하천으로, 뱀장어, 붕어, 가물치, 자라, 잉어, 다슬기 등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다.

군은 생명의 젖줄인 금강천의 생태계 보호와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지역특

산 어종인 붕어, 메기, 소가리, 자라 등 다양한 어류를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오정숙 해양산림과장은 "군의 지속적인 방류사업으로 어획량이 늘어나는 등 소득향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오름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금강천과 탐진천을 비롯해, 전지역으로 방류를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또 "뱀장어종의 보호를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어업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군은 올해 상반기에 강진만 해역 대구면 하저항에 해수면 어족자원인 점눈어, 감성돔 20만여 마리를 방류한 바 있다.

추윤호/기자



## 박홍률 목포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 활동 재시동 기재부 방문해 노후역사 개량사업, 김산전문기관 등 현안사업 설명

박홍률 목포시장의 내년도 국비 확보 활동에 재시동을 걸었다.

박 시장은 10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면담하고 ▲목포 노후역사 개량사업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사업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수출전략형 김산전문기관 운영 기반 마련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건설 ▲임성-보성 철도 건설 1단계 등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목포시는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들을 설명해왔고, 이런 노력에 힘입어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다수의 사업들이 반영됐다.

목포 노후역사 개량사업은 호남·남해선 거점역에도 노후되고 협소해 늘어나는 이용 수요 대응에 역부족인 목포역을 스마트 철도역사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골자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의해왔고,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사업은 노후역사 개량과 연계된 사업으로 궤도 재배치 및 시스템 보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올해 10월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을 계기로 비약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체육인프라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목포종합경기장 부지에 실내운동장, 다목적체육관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시는 생활권에 위치한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대회·전지훈련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출전략형 김산전문기관 운영 기반 마

련은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를 목표로 식품안전성 확보, 국제식품안전인증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대양산단에 따른 김겨래소, 냉동·물류창고, 임대허가공공장 등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인데 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증액을 건의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광주 송정~나주~무안국제공항~목포, 77.8km)은 무안국제공항과 서남해안권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관광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으로 시는 작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국비 증액 지원을 요청했다.

임성-보성 철도 건설 1단계 사업은 남해안 철도(목포~부산) 중 미개설 구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완공되면 목포~부산 이동시간은 6시 36분에서 2시간 24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시는 영호남의 활발한 왕래를 앞당겨 관광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 사업이 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설득했다.

박 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확고하지만 목표의 현안사업들은 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효과가 큰 사업이다.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기간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설득력있게 국비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준배/기자



## 신안군,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미식포럼 개최 도시 시동!

### UNWTO 아시아태평양지역 해리황국장 초청 자문 구해

신안군은 지난 7월 6일 UNWTO 해리황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장을 군에 초청해 신안세계미식관광포럼(UNWTO World Forum on Gastronomy Tourism) 유치와 국제미식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천혜의 섬 관광자원을 활용한 1섬 1정원, 섬마다 미술관을 구축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부응하는 음식문화 발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주최하는 미식행사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미식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UNWTO 해리황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신안에 머물며 안좌 퍼플섬과 플로팅미술관 건축 현장, 자은 뮤지엄파크 등을 방문했다.

안좌 퍼플섬은 지난 2021년 UNWTO가 선정한 세계최우수관광마을이다. 황국장은 그곳을 탐방하며 최우수관광마을 선정 이후 마을의 경제구조와 주민들의 변화

된 모습에 찬사를 보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군 특유의 섬지역 음식문화를 앞세워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와 손잡고 국제미식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황국장의 협조를 당부했고,

해리황국장은 "신안군의 문화예술정책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관광지를 방문하여 직접 눈으로 보니 듣고 싶은 마음이 더 깊어졌다"라며 협조 의지를 전했다.

한편, 군은 오는 10월 자은도에서 문화의 달 행사와 함께 군의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한 김밥축제를 자치단체 최초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진/기자



# 소득 두 배로, 경북농업 첨단산업으로 대전환 실현

### 경북농업기술원, 스마트농업연구회 설립 발대식 개최 스마트농업전문가 양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0일, 경북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기술원 소속 8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을 두 배로, 경북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스마트농업연구회 설립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경북 스마트팜의 상징성이 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개최해 설립 경과와 운영방향에 대한 보고를 하고, 한국 미래농업의 방향 및 경북도의 추진계획이라는 주제로 김대희 한국 미래농업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스마트농업연구회는 「농업의 첨단산업화로 열여가는 지방시대」라는 도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제로 직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미래기술을 습득하며, 이를 토대로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연구회 설립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구성하게 됐다.

연구회의 목표는 새로운 농업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첨단기술과 융합적 사고, 지식을 갖춘 전문가 그룹을 양성

해 경북형 스마트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농업 분야별 회원들의 기술 수요를 조사해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기본 이론과 기술 습득의 장을 마련한다. 나아가 스마트팜 설계, 유지, 운영,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생산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경북 스마트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분야는 ▲센서, IoT, 환경제어, 디지털트윈 등 ICT기술 ▲빅데이터, 생육 모델링 등 인공지능 분석기술 ▲방제, 수확 등 로봇산업기술 ▲LED 활용, 순환식 양액기, 실내환경 제어 등 식물공장 기술이 대표적인 예이다.

향후 인공지능, 로봇, IT기술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및 시군 센터도 함께 참여해 협업하는 스마트농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너지를 올릴 계획이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스

마트농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작물 생육 환경을 조성해 노동력, 에너지, 양분을 적절히 투입하는 기술로 스마트농업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 양성에 힘쓰겠다”라며,

윤근수/기자



# 군위, 신공항 개항과 함께 세계적인 복합휴양관광도시로 다시 날다!

대구광역시는 신공항 개항에 맞춰 군위군에 세계적인 복합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대구시는 다양한 관광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 유휴공간 부족과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거점시설이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

이에 이번 복합휴양단지에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골프장 등 레저시설, 호텔, 리조트, 고급 타운하우스, 산림휴양시설 등 약 200만㎡의 면적에 사업 규모는 대략 2,000억 원(부지매입비, 대지조성비용) 정도이며, 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공항도시를 대비한 국제적인 규모의 관광휴양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시행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모를 통해 민간 참여자를 선정한 후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시행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먼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최적의 입지 선정, 특수목적

법인(SPC) 구성 방법, 용지별 수요분석 등 사업 타당성 전반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기본구상 용역은 올해 8월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에 행정안전부의 출자타당성조사를 거쳐, 2025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2026년에 민간 참여자 선정 후 2030년까지 연수시설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업의 개발이익으로 대구 공무원 연수시설을 건립한다. 이로써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공동이익(20.7%)을 모두 이행하게 된다. 합의문에는 공항신도시 조성, 군위군 관동도로 건설, 대구 공무원 연수시설 건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구 공무원 연수시설 조성은 군위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약속한 사항으로 대구시 및 구·군 공무원 약 1만 4천 명의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시설로서, 건립 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연수시설

### 호텔·리조트, 레저시설, 공무원 연수시설 등 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공항도시를 대비한 국제적인 규모의 복합휴양단지 조성 최적의 입지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밑그림 구상 용역 추진

이 포함된 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은 통합 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군위가 국제적으로 대구의 새로운 관광·휴양 거점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대구시

가 산업·경제 부문 뿐만 아니라 관광·휴양 부문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봉화군, 건강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주도형 건강교실 운영

“일상 생활 속 활력 되찾기” (현정희 강사)에 참여하게 되며 건강교실은 총 46회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을 향상시키고 규칙적인 신체활동으로 지친 일상생활을 즐겁고 활기찬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국 봉화군수는 “건강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주도형 건강교실에 많은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약해진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보건소가 8월 31일까지 법전면 소천1리 경로당(2곳)에서 법전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주도형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마을조성 건강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강마을 주민의 건강한 일상 생활 활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은 전문강사가 지도하는 운동교실(정영주 강사)과 공예교실



# 경주시,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주유치' 위해 범시민적 소통 나서

### 10일 오찬 간담회서 경주유치 로드맵, 강점 분석 등... 열띤 논의의 장 열려

경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오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경주 유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범시민적 소통에 나섰다.

경주시는 10일 오후 '2025 APEC 경주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와 지역의 한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상반기 주요 APEC 유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용룡 위원장을 비롯한 범시민추진위원회 7개 분과 위원장이 전원 참석했으며,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철우 시장의 장, APEC유치지원특별위원회 이동현 위원장과 김소현 부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의 장을 펼쳤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개최도시 선정 일정이 연말 공모절차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단계별 유치 로드맵을 살펴보고, 경주 유치의 장점과 약점, 위험 및 기회요인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범시민추진위원회 차원에서 로드맵 단계별 중점적으로 수행할 역할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주시는 그간 구축된 유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하반기부터는 유치도

시 공모절차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홍보영상과 유치제안서 제작, SNS 및 서포터즈 운영, 유치 포럼, 100만 서명운동, 시민선진화 캠페인, 정제 및 대정부 유치활동 등 대내외 유치 홍보전을 본격화 등이 대표적인 강화방안이다.

2025 APEC 경주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박용룡 추진위원장은 “경주의 미래를 위한 일대 전환점이 될 정상회의 유치는 어느 누구 한사람의 힘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며 “과거 태권도공원 유치 실패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민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드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와 교류하던 국제도시였던 경주를 이제 다시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일은 어쩌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경주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로 정상회의 개최에 손색없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만큼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현 정부의 중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태용/기자



# 의성군, 상반기 협동조합 창업아카데미 개최

의성군은 7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의성로컬푸드직매장(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소1길 188) 2층 교육장에서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의성군민 및 청년(예비) 창업가 총 13명을 대상으로 '2023년 의성군 상반기 (사회적)협동조합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역사와 이해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원리와 갈등사례 ▲(사회적)협동조합 사례분석과 아이디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실무 등 (사회적)협동조합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교육 종료 후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희망하는 자는 법인설립, 소셜미션 정립, (사회적)협동조합 신고 및 인가 절차 등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며, 신청자의 사업 및 업종에 부합하는 유형별 법인설립과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인·지정에 관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의성군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사회적경제 기반의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매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의 사회적경제기업이 매년 다양한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의성군의 최대문제인 인구소멸의 문제들에 기업들이 각자의 비즈니스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실현되는 사회적책임이 결국 지역의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신념과 취지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상생협력 확산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7.10. 10:30, 부산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는 오늘(10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상생협력 확산과 지속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기관을 대표하여 박형준 부산시장, 이영환 부산상의 상근부회장,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에서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적인 사회 가치 경영 환경 속에서 원청기업과 협력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을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공급망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사법이 올해 독일에서부터 시행되고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전체로 확대되면서 협력업체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 24일 정부의 제2차 민간합동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정책협의 회'에서 마련한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에 부산시 상생협력 방안이 반영된 바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원청기업-협력기업 상생협력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으며, 이는 정부의 기업 지원방안 반영 이후 지자체 최초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내 기업의 대상기업 선정, 공급망 관리 특화지표 개발 등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인식 확산과 동반성장에 필요한 기반 시설(인프라) 공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자문(부산시, 부산상의), 심층진단(중진공) 제공 등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및 후속 연계 지원 공동 노력

고탄소 배출 중소기업에 "탄소중립 수준진단" 제공 등 탄소중립 전환 지원 마련

한편, 협약식에는 '상생협력 사업'에 참여한 원청기업 6개 사가 참석하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 의지를 표명할 예정으로, 이 기업들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상생협력 브랜치'로 지정되어 협력업체와 함께 동반성장을 하는 상생협력을 실천하게 된다.

지정(브랜치)으로 지정된 기업은 ▲동일고무벨트(주), ▲동일철강(주), ▲(주)성우하이텍, ▲(주)오리엔탈정공, ▲(주)파나시아, 한국남부발전(주)으로, 협력기업 5개사와 함께 '상생협력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바 있으며, 상생협력을 통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탄소중립 경쟁력을 강화한다.

협력기업들은 원청기업의 지원 아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역량을 키워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국제적인 기업들이 공급망 전체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도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부산지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상생협력 모델 우수 사례를 만들어 부산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이 확산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송충진/기자



## 영주시, 또래상담동아리 연합캠프 개최

8일~9일, 청소년수련원서 '또래상담자들의 소통 능력 UP'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8일부터 9일까지 영주시 청소년수련원에서 또래 상담 동아리 연합회원 40명을 대상으로 '또래 상담 동아리 연합캠프-또래 상담자들의 소통 능력 UP'을 진행했다.

또래 상담 동아리는 상담이나 심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상담 기본교육을 받고 또래 상호 간의 성장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모임으로 현재 영주시에는 14개 초중고에서 140여 명의 또래 상담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캠프에서는 또래 상담 프로그램 기본교육과 레크리에이션,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보드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또래 상담자들의 상담역량 및 소통 능력 향상을 도왔다.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또래 상담 동아리 연합캠프 외에도 각 초, 중, 고등학교 또래 상담 동아리 연합회를 구성해 또래 상담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및 아웃리치(찾아가는 현장상담)를 함께 하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합캠프에 참여한 박하량(금계중 3학년) 또래상담자는 "평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상담에 관심이 있어 또래 상담 동아리에 가입했다"며 "이번 캠프에서 다른 학교의 또래 상담 친구들과 1박 2일 동안 함께 교육받고 활동하며 친해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은규 아동청소년친화팀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또래 상담자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역이 주도 하는 지방시대 주역 된다

이철우 도지사, "초일류국가 진입 위해 지방화 반드시 성공시켜야..." 강조  
지방정책 총괄 컨트롤타워이자 지방의 강력한 파트너 역할 주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0일, 세종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헌판식에 참석했다.

헌판식은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일에 맞춰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인 이날 헌판식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부처장관/국회의원, 지방 4대 협의체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특별법은 당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연계 측면에

서 한계를 보임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관련법이 마련됐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방정부와 기업체, 대학 등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파격적인 규제개혁과 세제혜택을 담은 관련법들이 조속히 제정·개정돼야 한다. 특히, 수도권 기업의 이전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지방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의 투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됨에 따라 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국정과제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지역공약은 관리 부재한 상태로 국정과제에 미 반영된 지역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등이 없었다.

지역공약은 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2024년부터 부분적으로나마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북도는 교육부의 지방대학 권한이전으로 전국 최고 오지인 봉화·영양·청송과 도서지역인 울릉·예도 대학과 기업이 들어가는 U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이 권한을 갖고 주도하는 지방시대는 중앙정부가 생각지도 못한 창의력을 지방정부가 발휘하는 만큼 위원회는 시도협과 함께 자치조직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 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업화·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이 국민개인소득 5만불의 초일류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화를 성공시켜야만 한다. 오늘 출범한 위원회가 지방화의 핵심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에 지방의 강력한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울진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협력체 회의' 개최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총력



울진군은 6일 후포마리나하 클럽하우스에서 서산-울진의 13개 시군 단체장들과 중

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제8회 시장-군수 협력체 회의를 가졌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시-당진시-예산군-아산시-천안시-청주시-증평군-괴산군-문경시-예천군-영주시-울진군의 13개 시군을 연결하는 330km의 노선으로, 3조 7천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 노선의 철도 건설사업 준공 시 서쪽 끝인 서산시에서 동쪽 끝인 울진군까지 2시간 20분대에 오고 갈 수 있게 되어 중부권 교통

접근성 개선과 서해안 신 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 벨트 연결로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2016년 12개 시군 단체장이 협력체를 구성하여 매년 순회 개최로 회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2022년 당진시 개최 당시 차기 개최지로 울진군이 선정되어 열리게 됐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노선이 반영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한 사전타

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를 했으며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단순한 철도망 건설이 아닌 중부권 지역의 교통 연계성 강화와 균형 있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업이다"며 "13개 시군과 결의를 다지고 협력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 예천군, 청소년 자율 동아리 참여하세요!

이달 14일까지 모집, 동아리 활동 공간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예천군은 이달 14일까지 청소년 자율 동아리를 모집한다.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3층 청소년 학습지도관에서 운영되는 청소년 자율 동아리 모집 분야는 댄스, 취미, 학습, 요리 등으로 관

내 초·중·고등학생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동아리 대표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청소년 학습지도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s2ljh1207@kora.kr)로 제출하면 되고 군

은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발된 동아리는 동아리 활동 공간 제공은 물론 지역의 유능한 재능 기부자들로 구성된 단שמ마을교사봉사단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태환 행정지원실장은 "청소년 자율 동아리 운영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소모임과 활동을 지원해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지역에 필요한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학습지도관은 예천초등학교



윤근수/기자

## 문경시, 하늘재 옛길 복원사업 준공식 개최

백두대간 첫 고갯길 하늘재, 2,000여 년만에 다시 열린다

문경시는 지난 8일 하늘재 정상에서 하늘재 옛길 복원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신한국 문경시장을 비롯해 임이자 국회의원,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 박영서 경북도의회 수석부의장, 도의원, 시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준공식 이후에는 문경시가 주최하고 (재)세계유교문화재단과 안동MBC가 주관하는 라디오테이링이 진행됐다. 라디오테이링은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건기 프로그램이다. 이날 라디오테이링은 전국 각지에서 200여 명이 참가했는데, '대금연주', '진짜 온달을 찾아라', '고구려의 침공을 막아라'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어 2,000여 년 만에 다시 열린 하늘재 옛길의 복원에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하늘재는 문헌상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고갯길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아달라이사공 3년(156년)에 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하늘재는 군사, 교통, 물류, 문화 등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하늘재를 통해 신라에 불교가 전

파됐고 하늘재를 두고 삼국이 치열하게 대립했으며, 특히 온달 장군은 목숨을 걸고 하늘재를 탈환하고 싶어 했다. 또한 하늘재는 문경 도자기의 판로가 됐던 곳이며, 조선 초 문경새재길이 공식화되기 전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반드시 하늘재를 넘어야 했다.

이 역사적인 길이 지금까지 총주 구간에만 남아 있었는데 문경시에서 하늘재 옛길을 복원함으로써 문경과 충주를 잇는 하늘재 옛길이 완성됐다. 하늘재 옛길 복원사업은 하늘재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9년에 시작했다. 하늘재 정상에서 포암산을 지나 관음1리 마을로 이어지는 2.48Km의 옛길을 복원했고, 마을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하늘재를 홍보하기 위한 마을 공동구판장도 건립했다. 하늘재 옛길의 복원으로 많은 탐방객이 찾아 지역경제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준공식에서 신한국 문경시장은 "오랜 역사의 현장이며, 수많은 사람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하늘재가 2,000여 년 만에 다시 열린다니 감회가 새롭다.

오늘 준공식을 시작으로 하늘재 옛길을 홍보하고 잘 가꾸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힐링할

수 있는 명품 옛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 "2050 탄소중립 달성" 총력 대응



## 총력 대응

경북도는 지난 10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선도적인 대응과 경상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경상북도 탄소중립 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탄소중립추진단\*'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체계적 대응/탄소중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2021년 8월 31일 구성돼, 김학홍 행정부지사(위원장)를 포함해 11개 부처 21개 부서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응해 도의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및 적용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원태 경상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과 '경상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경북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무부서별 관련 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

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22.3.25.시행)」 제10조에 따라 경상북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되는 첫 법정계획이다.

경상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최종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을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경북도는 탄소중립을 위한 부문별·소관부서별 신규과제 발굴 및 국비확보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경북이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서가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의식을 갖

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라며 "내실 있는 추진단을 운영, 분야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2050 경상북도 탄소중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영양군 귀농협회 양수발전소 유치 캠페인 참여

## 영양군 양수발전소 유치, 우리도 적극 지지한다

영양군은 7월 10일 대구지방법원 영양등 기소 앞 사거리에서 영양군 귀농협회 회원 40여명과 함께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양수발전 프로젝트는 약 2조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영양최대 국책사업이다. 영양군 양수발전소 유치는 인구소멸대응, 관광자원 확보, 지역 인프라 구축, 지역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등 다방면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큰 이바지가 될 전망이다.

최봉석 영양군 귀농협회 회장은 "귀농인들도 영양군을 위한 일이라면 앞장서서 나설 것이며 양수발전소 유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양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고 전했다.

영양군 지역경제의 발전에 힘이 되고 싶다는 적극 나섰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우리 귀농인들이 영양군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먼저 영양군을 위해 나서주시는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다"며 "계속해서 영양군의 양수발전소 유치에 적극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캠페인에 동참하여 "우리 귀농인들도

윤근수/기자



# 대구광역시, 대구테크노폴리스 입주기업의 애로·규제 해소 나서

대구광역시는 7월 10일 대구테크노폴리스에서 올해 3번째 '기업 애로해결 및 규제개혁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달성군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규제 13건을 청취하고 범기관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황소농기계'의 개발 농기계 현장 테스트 성능시험을 위한 테스트필드 조성 요청에 대해 달성군에서는 인근 지방하천의 제방 사면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지역 내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농기계 개발 및 성능 인증 사업을 모색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잇츠센터(강대현 대표)'의 특허동향 및 시장분석보고서 제공 지원요청과 관련해서는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전략기술 특허발굴 매칭사업'과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운영 도서관이 보유한 시장동향 관련 자료제공 서비스를 안내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인프라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지역 내 대형병원 유치와 교통접근성 확대에 대한 '리빙케어(권택을 대표)'의 건의에 대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종합의료시설용지 토지소유자와 달성군, LH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종합병원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대구산업선 철도의 차질 없는 추진과 장기적인 버스노선 증설방안 마련 등 교통여건 개선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특구 내 환경관리기준 변경, 유치업종 배치계획 완화, 지역주민 문화·체육행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당일 바로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도 기관별 사후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분기별로 진행 상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분기에서 격월로 주기를 단축해 확대 운영 중인 합동간담회는 올해 초 의로 R&D지구와 국가산단·달성2차산단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두 차례 개최하여 산업단지

## 10일 합동간담회에 테크노폴리스 입주업체 8개사 6개 기관 참석

인프라 개선, 인력채용 지원, 지원제도 개선 등 28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한 바 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기업애로119 모바일 상담채널, 인터넷 홈페이지, 전용전화(803-1119) 등 다양한 기업애로 해결 전담 창구를 운영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접수하고 있으며, 기업을 상시 방문하는 현장중심 애로해결을 추진해 올 상반기 40건의 기업 애로를 상담·처리했다.

또한 올 상반기에 기업규제를 비롯한 총 51건의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상태이다. 그중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의 기숙사 건립을 제한했던 규제를 개선했고,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 교사교지의 대학 설립주체자 소유의무에서 타인과 공동소유까지 확대, 아동급식전자카드 월 최대 충전 한도액 상향 등 규제개선 요구 사항들도 수용될 예정이다.

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민선8기 들어 대구 골기의 노력이 모여져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지역경

윤근수/기자



# '2024대입 정보 제공'...영주시 진로진학아카데미

## 최고의 입시 전문가 이만기, 차상로 12일 시민회관 찾아

2024학년도 진로진학 아카데미

일시: 2023. 7. 12(수) 16:00 - 20:00  
장소: 영주시민회관(영주시 대동로 213)  
대상: 수험생 및 학부모 등 누구나

1부 16:00 - 18:00  
2024 수능 준비 및 수시지원 준비  
2부 18:30 - 20:00  
2024 대입 전형별 특징과 대비  
- 이만기 - (영남대학교) 수석  
- 차상로 - (영남대학교) 수석

위에 마련됐다.

아카데미 1부는 오후 4시부터 EBS 스타강사 출신의 이만기 준비 중앙교육평가연구소장의 '2024수능 준비 및 수시지원 준비', 2부는 오후 6시 30분부터 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의 '2024 대입 전형별 특징과 대비' 강의로 진행된다.

특히,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링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편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될 예정으로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험생과 학부모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입시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진로진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군·구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인재육성정책위원회 정학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청과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윤근수/기자

#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2023 코리아 유니크 메뉴' 선정 쾌거!

한국문화테마파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 코리아 유니크 메뉴'에 선정됐다.

코리아 유니크 메뉴는 '한국을 대표하는 매력과 특색을 가지고(Korea)', '오래 기억될 독특한 장소적 경험을 제공하는(Untique)', '마이스 행사가 가능한 공간과 시설(Venue)'을 의미한다.

문화부와 관광공사는 마이스 목적으로서 한국의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제회의 명소를 '코리아 유니크 메뉴'로 지정해 마이스 행사 유치·개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최초로 지정된 이후 현재 3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15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한국문화테마파크는 ▲마이스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16세기 조선시대라는 특색한 콘셉트 및 스토리텔링 ▲안동의 지역적 정체성 보유 ▲인근 관광 연계성(도산서원, 선성수상길, 군자마을, 이육사문학관, 수운장방, 농암정택)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옥 형태의 실내 공연장, 성곽 배경의 야외 공연장, 안동호 배경의 야외 행사장과 함께 저잔거리, 향촌 등 거리 전체를 활용해 한국전통적인 마이스 행사를 진행해도 연출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받았다.

지난 7월 6일 부산 피아에서 신규 메뉴를 포함하여 한국의 유니크 메뉴 전체 52선에 대한 협약식이 문체부 주관으로 개최됐다. 더 많은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 행사 규모별로 맞춤형 지원, 시설 개선, 흥

보 콘텐츠 제작지원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특구 내 환경관리기준 변경, 유치업종 배치계획 완화, 지역주민 문화·체육행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당일 바로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도 기관별 사후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분기별로 진행 상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분기에서 격월로 주기를 단축해 확대 운영 중인 합동간담회는 올해 초 의로 R&D지구와 국가산단·달성2차산단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두 차례 개최하여 산업단지

안동시 관계자는 "한국문화테마파크를 한국만의 유니크한 울림을 줄 수 있는 메뉴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여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더불어 지역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규 지정된 코리아 유니크 메뉴 15선은 ▶한국문화테마파크(경북 안동)를 비롯해 ▶피아크(부산) ▶통영RCE세자트라숲(경남 통영) ▶태권도원(전북 무주)과 ▶국립국악원(서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경기 파주) ▶10년후그라

## 가장 한국적인 매력과 경험 제공하는 마이스 시설로 호평 받아

화공간(울산) ▶엑스포과학공원한빛관(대전) ▶청남대(충북 청주) ▶981파크(제주) 등이다.

윤근수/기자



# 영덕군 달산면 새마을협의회, 국가문화재 주변 정화 활동 펼쳐

영덕군 달산면 새마을협의회 회원 20여 명이 피서철을 맞아 지난 7일 옥계계곡 일대에서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회원들은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옥산 산성계곡과 옥계 침수정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20여 마대를 수거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옥계 침수정 일원이 국가문화재 명승지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의 문화

재를 보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화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권순화 달산면장은 "지역 환경 가꾸기에 앞장서 몸소 실천해 오신 새마을지도자 남녀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민·관·이 힘을 모아 자랑스러운 지역의 문화재와 청정한 자연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 경남도지사, 오염수 방류 피해 관련 산업위기지역 추진

### 해양 방사능 측정 지점 확대, 측정 결과 실시간 도민 공개 지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0일 오전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했다. 박 도지사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와 정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어민, 상인들의 생계 문제”라며 “피해 구제를 위해 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 등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에서도 방사능 측정 지점을 늘리고 장비를 보강해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주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에서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주 국회 과방위 등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와 연대 개청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내년 국비에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재부,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예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이 전국 3분의 1 수준이고, 경남의 14개 시군이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지표에 도민이 한 목소리로 결집해 경남의 입장이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적으로 호우·폭염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상황에 대해 문자메시지만 보낼 것이 아니라 유선 통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내비게이션 표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도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을 당부했다. 폭염에 대비해 정부 대책과 함께 추가로 보완할 부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취약계층 등 도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공사 현장에 대해서 자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설계 기준대로 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시공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름철 행락 바가지 요금 방지, 주요품목 가격 조사와 공개 등 물가상승 억제에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끝으로, “인사 발령은 사전의견 수렴과 자료 수집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도정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평소에 직급별 간담회를 실시해 도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인사에 반영해야 직원들이 의견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 남해물, 하반기 입점신청자 모집

남해군은 2023년 남해물 하반기 입점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남해물 게시판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7월 24일(월)까지이며, 신청 가능 품목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수산물이나, 이를 사용한 가공식품도 가능하다. 남해물 입점업체는 남해물 주문 건에 대한 배송비 지원, 소비자 쿠폰발행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해물 입점여부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 심도있는 검증과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청서 제출로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검증과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이 결정된다. 온라인 판매역량 및 생산규모 등을

조사하고, '남해군 보물섬 소평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입점자격을 얻은 업체는 상세페이지 제작 등 입점 준비를 거쳐 남해물에 등록된다. 따라서 1개월 이상의 여유를 두고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남해물에는 78개업체, 400여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인기상품으로 마늘, 단호박, 흑마늘 가공품 등 다양한 특산물들이 있다. 특히, 7월 한달 동안 남해물에서는 남해의 대표 농특산물인 단호박 출하를 홍보하며 많은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쿠폰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소평물에 남해군 브랜드관을 개설하여 유통경로 확보 및 판매 증진을 위해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용준/기자



## 구미시, 환경오염사고예방 선제대응에 앞장서

### 사업장·환경기술인 대상, 시설관리에 필요한 핵심정보 제공

구미시는 7일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안전한 관리와 환경오염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기술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과 서부환경기술인협회 회원사 소속의 환경기술인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고 사례, 환경법령 주요 위반사례, 환경기술인들이 평소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과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 현장 실무에 반

사 필요한 부분으로 구성했으며 배출시설 관리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환경 조성과 안전한 사업장 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토의를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했고, 안전한 환경시설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교육에 대한 높은 호응이 있었다. 손양숙 환경관리과장은 “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 현장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 실시 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동현/기자

## 부산 영도구, 2023년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인구위기시대 인식과 공감대 형성

부산시 영도구는 지난 7월 10일 영도구청 대강당에서 안성민 부산시 의장, 이경민 영도구 의장, 의원들을 비롯해 지역 내 각계각급 단체장, 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도구가 2021년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구민 관심을 높이고 인구 위기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자 구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그간 지역 내 인구활력화에 기여한 개인·단체·기업을 대상으로 개인부문 강희영(지역사회 결혼·출산·양육 친화분위기 조성, 영도맘 회장), 기관부문 사회복지법인 해원 영도구노인복지관(고령화 대응분야, 관장 박석원), 기업부문 세계식품(주) (가축친화기업, 대표 신기식) 등 유공표창을 수상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일·생활 균형, 가족의 가치, 양성평등 관점의 교육을 통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과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인

구보건복지협회에서 개발한 인구교육용 뮤지컬 '리허설' 공연이 준비되어 참석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였다. 한편, 구청 행사와는 별도로 영도구는 오는 7월 13일까지 인구주간을 운영한다. 10일 상리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3일까지 청학초, 봉삼초, 영도제일중, 부산남중, 부산보건고 등 사전신청한 관내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인구교육뮤지컬' 공연을 진행, 총 1,300여명의 학생이 관람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활력 회복, 미래세대 위한 투자 확대, 정주환경강화, 방문 생활인구 유입에 힘쓰는 등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의 날은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이 넘는 것을 기념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UN 산하 국제연합개발이 지정하면서 시작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지정해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한다.

송중진/기자



## 통영시 소중한 고향사랑기부금, 가장 공감 가는 사업은?

통영시는 고향사랑기부금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10일부터 28일까지 3주 동안 통영시청 홈페이지에서 시민참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분야와 가장 공감 가는 사업에 투표하고 기금 사업으로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고향사랑 기금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

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통영시는 고향사랑 기금사업 발굴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통영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재기부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통영시로 기부된 소중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 것이다”며 “미래100년의 도시 통영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 통영시, 고향사랑기부금 신규 사업발굴에 따른 설문조사 실시



## 사천시, 하수도 사용료 한시적 인하

사천시는 최근 고물가 상황이 연일 계속되면서 시민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결 권고에 따라 올해 7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 4개 업종의 하수도 사용료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하수 1m³당)은 기존 931원에서 782원, 일반용(1~100m³ 구간 기준)은 1,169원에서 982원, 대중목욕탕(1~500m³ 구간 기준)은 996원에서 837원, 산업용은 962원에서 808원으로 각각 변경 적용된다. 이는 2022년 하수도 사용료 수준으로 되

어가는 것. 이번 인하 조치로 한 달 25m³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현재까지 2만 3275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1만 9550원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가계부담이 매일 3725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2021년 4월에 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매년 단계적 요금 인상을 목표로했으나, 당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해 공작 시행에 들어가지 못했다. 또한, 올해 1월 고지분부터 3년간 하수도 요금을 매년 19%씩 단계적 인상으로 행정안전부 권장 수치인 현실화율 60%를 달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지방공공요

금 인상 동결 권고에 따라 현실화율 달성 계획을 1년간 미루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1월 인상 이전

사용료로 한시적으로 환원하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60% 달성을 위한 연차적 인상 계획 역시 1년씩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준/기자



# 강원도 DMZ박물관'코리아 유니크 베뉴'3회 연속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DMZ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3 코리아 유니크 베뉴(Korea Unique Venue)' 52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코리아 유니크 베뉴는 한국을 대표하는 독특하다는 의미의 유니크(UUnique)와 장소를 뜻하는 베뉴(Venue)의 합성어다.

지난 6일 부산 피아크에서 열린 '코리아 유니크 베뉴 지정 협약식'에서 DMZ박물관과 한국관광공사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으며 코리아 유니크 베뉴 현판을 수여 받았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마이스(MICE), 기업회·포상관광·컨벤션·전시) 장소로서 한국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제회의 명소를 '코리아 유니크 베뉴'로 지정해 지원해 왔다.

이번에 신규 베뉴 15곳을 선정하여 코리아 유니크 베뉴는 기존 37곳에서 52곳으로 확대됐다.

한편 DMZ박물관은 지난 2019년 코리아 유니크 베뉴 30선에 이어, 2020년 코리아 유니크 베뉴 37선, 이번에 52선 까지 3회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선정된 베뉴에는 3년간 자격이 주어지며, 홍보콘텐츠 제작, 국내외 마이스 홍보활동, 시설 개선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박귀태 박물관장은 "DMZ박물관이 제공할 수 있는 분단과 전쟁, 평화와 통일 의 상징성을 살리고, 관람객 편의시설 및 회의시설 확충, DMZ관련 홍보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더 많은 문화행사 및 회의 등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신정호수공원, 전국적 이목 쏠릴 것" 대형 축제, 지방정원 조성 등 인근 상인 전체 대상 간담회 주문

아산시의 대표 휴양지인 신정호수공원이 오는 하반기 대규모 문화예술 축제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의에서 신정호수공원에서 열리는 대형 행사를 언급하며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를 지시했다.

먼저 박 시장은 "아트밸리 아산 신정호섬머 페스티벌(SUMMER FESTIVAL)이 이웃 천안시의 K-컬처 박람회와 같은 8월 11일~15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며 "홍행에 영향을 있겠지만, '락 페스티벌'과 '제2회 신정호 아트밸리 별빛음악제', '뮤지컬 영웅 갈라콘서트' 등 우리만의 차별화된 집객 요인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기가 얼마 안 남은 만큼, 전 부서가 관계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주길 바란다. 유튜브 영상과 시민 영상공모도 검토해달라"면서 "우리의 락 페스티벌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보다 일주일 앞서 열리고, 유료 공연에서 볼 수 있는 출연진이 나오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다. 홍보 대상을 경기도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자신했다.

박 시장은 특히 '아트밸리 아산 재즈(JAZZ) 페스티벌 위드(with) 자라섬'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행사는 매년 경기도 가평 자라섬 일대에서 열리는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과 신정호수공원을 연계한 행사로, 시는 올해 신정호수

공원 무대에서 자라섬 페스티벌 출연진의 공연을 동시에 선보일 계획을 추진 중이다.

박 시장은 "10월 7~9일까지 자라섬 페스티벌과 아산시의 재즈 페스티벌이 동시에 열린다. 자라섬 출연진이 교차로 아산에서 공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라섬 페스티벌을 아산에서 분산 개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라섬 페스티벌은 워낙 유명하고 세계적인 행사다. 아산에서도 같은 무대가 열린다는 점을 자라섬 홍보물에 첨가할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경상도, 전라도 지역처럼 거리가 멀어 자라섬 페스티벌에 참여를 주저하는 재즈 마니아들이 아산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계속해서 박 시장은 이 같은 대형 행사와 함께, 신정호 지방정원사업을 위한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신정호 주변 상인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대규모 간담회 마련을 지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신정호 카페와 레스토랑 등에서 열린 '100인 100색 미술전시회'가 성공을 거둔 것은, 설명회를 갖고제가 직접 상인들에게 사업 내용과 효과를 설명한 것이 주요했다"며 "이제 섬머페스티벌과 재즈 페스티벌을 비롯해 꽃축제, K-트롯 경연대회 등 더 큰 프로젝트가 동시에 이뤄진다.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공지하고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호/기자

# 충남도, 여성농업인 화합의 장...농업 발전 '합심'

## 10~11일 당진서 제41주년 충청남도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열려

충남도 내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다짐하는 제41주년 충청남도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충남 당진실내체육관에서 10일 개최됐다.

한국생활개선충청남도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도와 당진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농업·농촌을 지키는 힘센충남 생활개선회'를 주제로 열렸다.

한국생활개선충청남도연합회는 농촌 여성의 지위 및 권익 향상, 여성 후계 세대 육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농업인 단체로, 도내 84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태홍 지사와 도·시군 및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 한국생활개선충청남도연합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표창 수여, 사랑의 쌀 전달식, 간담회, 학습동아리 과제 경

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한마음대회에선 농업·농촌 발전에 공헌한 우수 여성농업인 42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쌀 600kg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나눔 행사를 펼치는 등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우리 농업·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농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라면서 "도는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에 88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김 지사는 "농사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운반 카드, 파종기 등 1인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편의장비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임기 내 7000명 이상에게 전문 교육과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제2의 새마을운동을 펼쳐 도로·가



스·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을 개선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권익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양순 한국생활개선충청남도연합회장은 "생활개선회는 농업 경영의 실질적 주제인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직업 역량 개발 등에 앞장서고 있다"라면서 "스마트농업 실현, 매력적인 농촌 공간 조성 등에 힘써 진정한 여성농업인 리더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마음대회는 오는 11일까지 이틀 간 열리며, 2일 차에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왜곡마를 인근 환경 보전 활동, 치유농업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원호/기자



# 충북도 '영상자서전 사업' 민간주도의 공익사업으로 무한확장 중

##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미원분회를 시작으로 2,000여명 참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사업'이 민간 주도의 공익 사업으로 무한확장 중이다.

충청북도는 광복회 등 보훈단체에 이어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상자서전사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 영상자서전 사업은 도민들의 삶의 기록을 영상으로 제작 저장하고, 유튜브에 올려 언제 어디서든 본인 및 지인,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사업이다.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는 10일 미원면분회 경로당에서 30명의 참여 어르신들의 '추억 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촬영을 진행했다.

이날 촬영은 노인회의 영상자서전 참여의 첫 촬영으로 이명식 노인회장을 비롯

도 관계자 등이 참가하며, 출연 어르신과 촬영팀을 격려했다.

이명식 회장은 "충북도의 좋은 사업 취지에 공감하여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향후 2,000여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김두환 노인복지과장은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감사드린다"며 "영상자서전은 주민이 주도하여 참여하는 사회참여 활동으로 나이 제한 없이 원하시는 주민 모두 신청하시면 무료로 촬영하고, 도 유튜브 채널에 등재할 수 있다"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충청북도에서 추진 중인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사업'은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

며, 개인의 삶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후세에 전달하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문화 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현재 800여건의 영상이 유튜브 '충북영상자서전' 채널에 등록되어 있다.

김원호/기자



# 태백시, 2023 하계 대학생 교육캠프 실시

태백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세대학교 희망원정대 재능봉사 캠프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여름과학 캠프를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황지고등학교와 철암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며, 총 77명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황지고등학교는 1학년 46명, 2학년 20명으로 66명, 철암고등학교는 1학년 8명, 2학년 3명으로 11명이 참여한다. 교육캠프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간 황지고등학교에서 진행되며, 철암고등학교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다.

교육캠프 프로그램은 입소식과 오리엔테이션, 아이스브레이킹, 전공 소개, 즐거운 영아놀이, 문학 창작 프로그램, 체육대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시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여름 과학 봉사 캠프를 장성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유성근/기자



# 천안시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110명 본격 근무 시작



천안시가 여름방학 기간 중 운영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선발된 110명이 10일 시청 봉사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5주간의 근무에 투입된다.

오리엔테이션은 박상돈 천안시장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청년정책 소개, 안전관리 교육 및 근무안내 등 유의사항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110명의 학생은 특별 13대1, 일반 23대1이라는 높은 경쟁 속에 선발됐으며, 앞으로 시 분청, 읍면동, 시 산하 기관 등 37개 부서에 배치돼 행정업무 보조 및 기타 현장 근무를 체험하게 된다.

8월 11일까지 운영될 이번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해소하고 현장 체험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르바이트 기간 중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대회를 개최해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보상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높은 경쟁률을 통해 선발된 만큼 아르바이트 기간이 시정체험과 함께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니브시티 천안으로서 대학생의 시정체험 기회를 확대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 경기도 특사경, 복날 대비 불법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집중 단속



### 삼복(초복 7.11, 중복 7.21, 말복 8.10) 대비 불법 도살 우려 지역 집중 단속 및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 전환 추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개 불법 도살 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10일부터 8월 말까지 삼복(초복 7.11, 중복 7.21, 말복 8.10)에 대비해 자정이나 새벽 등 취약한 시간대에 맞춰 약 50일간 잠복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4월 27일 동물의 생명 보호는 물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더욱 강화해 개정 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안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되기도 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도살 의심 시설,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등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 동물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 또는 질병을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의 정서와 인식은 예전과 달리 많이 높아졌으나, 개 식용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으로 이어져 왔다"라며 "현행법상 불법인 개 도살과 관련해 경기도 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려(의심) 지역 선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중 단속과 별도로 동물 관련 불법행위는 연중 수사로 지속 실시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최만식/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복날 대비 불법도살 등 동물학대행위 집중 단속**

☑ 삼복(초복 7.11, 중복 7.21, 말복 8.10.) 대비  
☑ 자정이나 새벽 등 취약 시간대 잠복수사 실시

**고의로 먹이를 주지 않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 제보 경기도 콜센터 ☎ (031)120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 www.gg.go.kr/gg\_special\_cop

## 당진시, 야간 교통사고 예방 위해 경광등 지원 사업 실시 농번기 트랙터 등 교통사고 방지 노력



당진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야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당진경찰서에 LED 자석식 부착 경광등 568개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번기를 맞은 요즘 당진 관내에서 △32번 국도 트랙터-오토바이 교통사고(2023. 3. 5.) △순성-합덕 지방도 트랙터-오토바이 교통사고(2023. 5. 14.) △32번 국도 트랙터-화물차 교

통사고(2023. 5. 16.) 등 야간에 트랙터 지속 운행과 식별이 어려워 야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미등 미작동 및 미설치 트랙터, 오토바이 및 전동휠체어 뒷부분에 부착할 수 있는 LED 자석식 부착 경광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당진경찰서에 LED 자석식 부착 경광등을 전달하면서 트랙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모내기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야간 트랙터 운행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야간에 트랙터를 운행하실 때는 경보등을 반드시 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경찰서는 각 읍면동 마을회관 등을 통해 야간 운전 시 트랙터 경보등을 켜고 운행할 것을 지도 홍보하고 경광등 수요량을 파악해 이날 전달받은 경광등을 필요한 시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원호/기자

## 무안군, 관계기관 합동 '도내 교통 사망사고 줄이기' 캠페인

### 정지선 준수,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위한 홍보활동 전개

전남 무안군은 지난 6일 전남도청사거리에서 전남경찰청, 무안경찰서, 무안교육지원청, 무안군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관계기관 100여 명과 합동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전남에서 급증하는 도내 교통 사망사고(전년 대비 26명 증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마련했다.

캠페인은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현수막·팻말을 들고 교통안전 홍보물 등을 전달하는 등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지선 준수,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무안군을 만들기 위해 민·관·경 모두가 협력하여 지속적인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 곡성군, 죽곡면의 어려움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에 맡겨 주세요

### 죽곡면 복지기동대 도배·장판 등 재능 기부

곡성군이 지난 7일 죽곡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관내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배, 장판 지원 및 주거지 내·외부 청소, 정리에 나섰다

대상 가구는 고령의 독거가구로, 건강이 좋지 못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또한 노후된 집에서 생활하며 고장난 보일러로 매년 추울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죽곡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보일러와 보일러실을 설치하고, 곰팡이가 핀 벽지와 장판을 교체했다. 또한 지하분한 주거지 내·외부 청소, 정리 활동도 실시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 A씨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면 관계자는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매년 발 벗고 나서주는 복지기동대원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삶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전남형 생활복지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민관 협력 지원 단체다. 기동대원들은 이웃의 어려움은 동네가 해결한다는 목표로 이웃들의 일상생활의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죽곡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는 이장, 어르신지킴이단장, 소상공인 등 16명의 다양한 대원들로 구성돼 있다.

우리동네복지기동대는 지난 6월에도 관내 취약계층 도배, 장판 교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 외에도 매주 밀반찬 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다.

최상홍/기자



## GOOD AIR CITY 인증도시

# 대한민국의 숨, 울진

## 대한민국이 숨쉬고 모두가 함께 숨쉬는 땅, 울진

대한민국의 숨, 울진은 동해바다의 푸른공기와 금강송의 맑은공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맑은공기 모범도시(GOOD AIR CITY 인증도시)울진을 상징합니다.



#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교육이 바로 설 때 제대로 된 K-교육”



10일, 도교육청-국가보훈부 미래세대 보훈 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과 국가보훈부가 10일 미래세대의 보훈 교육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태희 교육감과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은 이날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미래세대 중심 보훈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연계 보훈 프로그램 협력 ▲청소년 보훈 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 ▲보훈 국제 교류 협력 ▲학교 보훈 문화 확산과 교원 역량 강화 운영 지원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 프로그램 운영 등 도내 초·중·고의 보훈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할 예정이다. 보훈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협력과 지원도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교육감으로서 모든 교육이 다 중요하지만 국적 있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면서 “교육이 바로 설 때 대한민국 교육이 제대로 된 K-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부와 함께 학생에게 도움이 되고 학부모님이 공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 챙기겠다”며 “경기도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뀐다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전남교육청, 전남·경북 초등학교 '온라인 협력학습' 추진

두 지역 각 10개 학급 1대1 매칭 쌍방향 원격수업

전남과 경북 지역 초등학교들이 원격 화상수업을 통해 학습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해나가는 온라인 협력학습에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끈다. 온라인 협력학습은 웹카메라로 연결된 각 교실에서 같은 주제의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남남도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 간에 진행되는 교육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수업은 지역적·학 교별 특성을 살린 주제를 통해 교류를 강화하는 물론 추후 지역 친화적 교육과정 공동 개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남·경북은 지난 4월 논의를 시작해 각 지역 초등학교 10개 학급을 매칭해 교사 간 사전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교과에서 프로젝트 형 원격 화상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운영학교는 순천월산초-구미원당초, 화순초-진량초(경산), 함평초-대교초(칠곡), 녹동초-산양초(문경), 오룡초-안동 송현초, 순천북초-유림초(경주), 고성초(진도)-의곡초(경주), 순천용당초-사동초(경산), 목포신흥초-운곡초(김천), 서삼초(장성)-장기초모포분교(포항) 등이다. 선정된 학교는 학생수 1명에서 27명까지 도시와 농촌-어촌 등 학년과 학급이 다양하게 구성됐다. 수업은 각 교장의 자연환경·역사·문화를 주제로 메타버스 플랫폼 젠(ZEP), 디자인 플랫폼 캔바(CANVA) 등 에듀테크를 활용해 학생 주도적으로 진행된다. 학기 별로 1-2회 수업이 진행되고 오는 12월에는 운영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가

# 대구시교육청, 대구교육가족과 시민을 위한 한여름 밤의 힐링콘서트 '비르투오소들의 조우'

## 첼리스트 송영훈, 피아니스트 양성원,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공연

대구시교육청은 대구교육가족과 시민을 위한 힐링콘서트 '비르투오소들의 조우'를 오는 7월 13일 15:00, 19:30 총 2회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개최한다. 학생들의 예술체험학습 및 일반 시민들의 관람 기회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 1회(15:00) 공연에는 관내 초·중·고 학생 680여 명, 2회(19:30) 공연에는 대구교육가족 및 일반 시민 등 1,200여 명이 관람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대구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지역의 대표 클래식 공연장인 대구콘서트하우스가 주관하는 콘서트, '비르투오소들의 조우'팀인 첼리스트 송영훈, 피아니스트 양성원,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의 공연으로 진행된다. 주요 연주곡은 피아니스트 양성원의 쇼팽 '녹턴'을 시작으로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의 크라이슬러 '사랑의 슬픔', 첼리스트 송영훈의 슈만 환상소곡집 Op.73 독주와 베토벤 피아노 3중주

'고스트' 등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한여름 밤을 아련다운 선율로 수놓을 이번 비르투오소들의 조우 공연을 통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대구교육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힐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품격 있는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콘서트하우스와 협력하여 2019년부터 학생예술체험 프로그램인 클래식오아시스와 D-Art路 사업을 추진하며 학생들이 수준 높은 예술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 금호워터폴리스

- 상업, 근생, 지원, 단독주택, 주차장용지 수의계약 공급 중
- 관광숙박시설용지 공급 중

## 안심뉴타운

- 일반상업, 준주거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 중

분양문의

# 053) 350-0300

대구도시개발공사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dud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MZ세대 모여라! 부천세계 비보이대회와 함께 떠나자!



부천시, '2023. 부천 페스타 투어 - BBIC편' 추진...오는 20일까지 신청

부천시는 부천 4대 국제문화축제 연계 관광 활성화를 일환으로 제8회 부천세계비보이대회(BBIC)와 함께하는 '2023. 부천 페스타 투어 - BBIC편' 행사를 추진한다.

부천 페스타 투어 BBIC편은 BBIC의 개막일인 오는 22일에 1회 운영되며, 부천의 주요 관광지 방문과 BBIC 월드파이널 대회 관람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특화 관광 코스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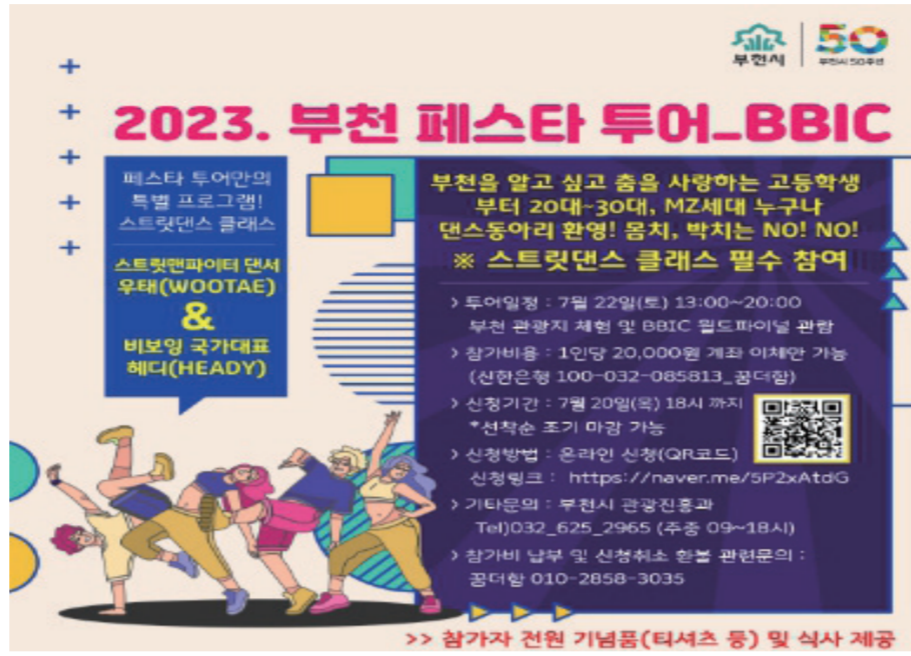
특히 이번 BBIC 투어는 스트리트(길거리) 문화에 익숙한 MZ세대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리트 맨 파이터' 출신 유명 댄서 '우태(WOOTAE)'와 국가대표 비보이 '헤디(HEADY)'가 함께하는 댄스 클래스 '댄싱 인 더 부천'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천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국궁 체험' 등 페스타 투어만의 특별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10대 고등학생을 포함한 20~30대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무박 1일 버스 투어 형식으로 진행되며, 페스타 투어 참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별도이며,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부천시는 이번 BBIC편에 이어 오는 9월에 개최되는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에도 특별 페스타 투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9일 막을 내린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에서도 페스타 투어를 진행한 바 있다.

조용의 부천시장은 "부천 4대 국제문화축제를 관광상품과 연계 개발해 관광도시 부천으로의 도약과 '문화의 산업화'를 이뤄낼 계획"이라며 "이번 페스타 투어를 통해 제8회 부천세계비보이대회를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 서울시, 서울 곳곳 찾아가 무더위 식혀준다...아리수 트럭 본격 운영

7월부터 초·중·고등학교 20개교 찾아가 시원한 아리수와 아리수 음료 무료 제공

서울시가 7월부터 학교, 축제 등 시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아리수를 먹으며 즐길 수 있는 이동식 체험관을 본격 운영한다. 이는 수돗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아리수 먹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아리수 이동식 체험관에서는 시민 누구나 텀블러를 지참하면 시원한 아리수와 아리수로 만든 각종 음료를 맛볼 수 있다. 또, '나는 아리수를 먹는다' 캠페인과 아리수 이동식 체험관 명칭 공모 이벤트를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고, 손으로 패드를 빠르게 두드리 가상의 컵에 아리수를 채우는 게임도 체험할 수 있다.

아리수 이동식 체험관은 오는 10월까지 서울시내 20개 학교에서 열리는 운동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찾아가 총 1만 2천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또한, 아리수 이동식 체험관이 찾아가는 학교에 설치된 음수대 점검 및 수질 검사가 필요하면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 12일에는 양천구 월촌중학교에서 열리는 '월촌 플라마켓' 행사에 참여

한다. 자원 순환의 의미를 체험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아리수 이동식 체험관을 통해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아리수를 마시면서 환경을 위한 실천에 동참할 수 있게 한다.

앞으로 아리수 이동식 체험관은 서울 도심, 공원, 축제의 현장에 찾아가간다. 7월에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노들섬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아리수데이에 참여하고, 8~9월에는 서울숲, 청계광장 등에서 시민들을 만난다.

한편,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쪽방촌, 노숙인지원센터 등을 찾아가 시원한 아리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이동식 체험관 운영을 통해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즐겁게 아리수를 먹을 수 있는 체험이 되고 무엇보다 아리수를 먹으면 환경을 보호하는 가치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널리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딸기시배지 밀양! 밀양딸기 1943\*으로 새롭게 태어나다

1943년 햇볕 빼곡한 밀양에 이 땅 최초의 딸기가 뿌리내리다

밀양시는 밀양딸기 브랜드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밀양딸기 BI(Brand Identity)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비란 소비자가 상표를 보거나 들을 때 연상하는 이미지 통합화 작업을 의미한다.

브랜드명은 밀양딸기 1943\*이고, 슬로건은 처음맛본태양이다. 이는 1943년경 우리나라 처음으로 밀양에서 딸기 재배를 시작한 딸기시배지로서의 의미를 담았다.

딸기 심벌은 밀양시의 대표브랜드 마크인 '해맑은상상 밀양'의 햇살을 형상화한 사다리꼴 그래픽 요소를 모티브로 딸기의 각 부위를 도식화해 탄생했다.

두 개의 기본 사다리꼴 그래픽 모티브를 결합해 통통하고 탐스럽게 익은 딸기의 과육을 표현했고, 과육을 표현한 큰 사다리꼴을 20% 크기의 방사형으로 조합해 밀양의 눈부신 햇빛의 조각과 튼니버퀴 모양의 딸

기 꼭지 잎을 동시에 표현했다. 또한, 과육을 표현한 큰 사다리꼴의 10% 크기로 10개의 씨앗을 모아 1943년 처음 심은 10포기의 딸기 모종을 상징한다.

밀양딸기 BI의 전체적인 컬러는 태양빛과 딸기를 상징하는 레드컬러, 밀양의 역사에 담긴 유적지 영남루의 쪽빛 기와를 상징하는 네이비컬러, 청량한 밀양의 하늘과 밀양강을 상징하는 에메랄드컬러를 사용했다.

이번 밀양딸기 BI는 2021년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F Design Award에서 본상을 수상한 실력있는 종합디자인 회사인 (주)지오로직(대표 심유진)에서 개발했다.

지난 제65회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 동안 밀양미래농업관에서 밀양딸기 BI 1차 홍보를 진행했으며, 홍보이벤트 및 굿즈 배

부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감을 얻었다.



박일호 시장은 "앞으로 밀양시는 새로운 밀양딸기 BI를 활용해 포장재 개발, 가공품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홍보활동에 적용해 딸기시배지의 자부심을 담아 밀양딸기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고품격 밀양딸기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2021년 국비사업 공모를 통해 밀양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밀양딸기 명품화를 위해 밀양딸기 BI 개발사업, 지리적표시제 등록사업, 딸기맥주 개발사업, 딸기문화마을조성사업, 딸기6차산업대학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실시한 농림축산식품부 중간평가 결과 우수지구로 선정됐다.

최덕수/기자

## 올 가을 열릴 청송사과축제 주제는 청송사과, 찬란한 금빛 향연

7월부터 초·중·고등학교 20개교 찾아가 시원한 아리수와 아리수 음료 무료 제공



청송군은 올 가을에 열릴 제17회 청송사과축제의 주제를 "청송사과, 찬란한 금빛 향연"으로 최종 결정했다.

군은 지난 6월 15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 축제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양태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제17회 청송사과축제의 개최일을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 용전천 현비암 일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

축제 주제의 경우 축제추진위원회로부터 추천 받은 복수의 '안'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송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거쳐 '청송사과, 찬란한 금빛 향연'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청송사과축제의 주제는 1등을 상징하는 금메달의 금빛, 그리고 당도가 높

고 식감이 더욱 좋은 황금진 청송사과의 금빛을 담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11년 연속 대상에 빛나는 청송사과의 명성을 확고히 다지고, 청송사과축제가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잔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최근 지역 축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먹거리 관련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잔치 같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청송사과축제의 명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글로벌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 창녕군, '대곡 연꽃한마당 축제'성료

창녕군은 지난 8일 남지읍 대곡마을에서 '대곡 연꽃한마당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주도의 마을문화 형성을 위해 마을주민들이 기획부터 준비, 운영 등 전 과정을 주체적으로 진행했다.

낙동강 범람으로 생긴 대곡 늪에 피어난 홍련을 배경으로 진행된 이날 축제에는 100여 명의 마을주민이 참석했으며 농악단 공연, 귀촌인-출향인 자매결연식, 음악회, 화합의 잔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대곡마을 주민의 자녀와 지인들이 창녕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6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자 중 한 자녀는 "부모님이 살고

계신 창녕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창녕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전했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활기찬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대곡마을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한다"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원주민과 귀촌인이 더욱 화합하고 결속을 다져 대곡 늪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축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곡마을 한 주민은 "올해 농촌축제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축제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내년에는 더 알찬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대곡 연꽃한마당 축제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덕수/기자






#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유통 혁신**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을 통한 유통 구조 혁신과 함께 수급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농협들 경쟁력 강화로 농·축산물 유통 대변화

**디지털 혁신**

농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농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지능화 등 디지털농업 강국 실현

**조직문화 혁신**

조직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고 창의적 생각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봉화군  (재) 봉화축제관광재단

봉화로 COOL한 여행 ————— 은어와 HOT한 만남!



BONGHWA SWEET FISHES FESTIVAL

**2023**  
**07.29** SAT — **08.06** SUN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 일원

**친환경 양수발전소 유치**  
3만 군민 모두의  
꿈과 희망을 담아  
간절히 소망합니다!